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6호  
2024년 1월호  
(2023년 12월 통합)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눈 덮인 브라이스 캐년서 새해 소망을 빌어본다



워싱턴DC 이기우(문리대 67) 동문이 2019년 1월7일 촬영한 유타주 남부 브라이스 캐년의 겨울 설경 사진을 보내왔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해돋이 명소를 찾아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소망을 빌며 이런 저런 새로운 결심을 한다. 이 동문은 대자연의 환상적인 설경을 새해 선물로 드린다면 미주 모든 동문들이 2024년을 행복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로 수놓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11면>

## 올해 평의원 회의, 크루즈 선상서 개최

6월1일~8일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  
플로리다 출발, 마야문명 유적지 등 방문  
일반 동문도 환영...1월 말까지 예약해야

제3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1일(토)부터 8일(토)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프린세스)에서 개최된다.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의대70)는 “연례 평의원 회의를 크루즈에서 하게 됐다”면서 “팬데믹으로 움츠러 들었던 미주 각 지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젊은 관악세대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안건 등이 토의될 예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방문지가 마야 문명 유적지로 반만년 역사의 한류를 선도하는 최고 명문

서울대 졸업생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산하 27개 지부 회장들과 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이사(실버 및 골드 이상 등 포함)도 회의에 참가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2차 평의원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반 동문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크루즈 일정은 첫날(6월1일): 플로리다(FL Lauderdale) 출발, 둘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셋째날: 코스멜(멕시코) 기착해 마야사원과 아름다운 백사장, 이국적인 정글 체험, 넷째날: 로아탄(온두라스) 기착해 아름다운 산호초, 열대 풍경 경험, 다섯째날: 벨리시티(벨리즈) 기착해 유카탄반도를 방문하고 마야문명을 관람하고 역시 열대 야생을 관람, 여섯째날: 코스타 마야(마할우알, 멕시코) 기착해 4곳의 마야 유적을 통해 진정한 마야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곱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마지막 밤으로 폐막 행사, 여덟째날: 플로리다(Ft. Lauderdale) 도착이다.

경비는 2인1실 기준으로 1인당 1291달러(인사이드), 1649달러(발코니)이다. 1월31일까지 예약(여권 필요)해야 하며 1인당 25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완납은 2월28일까지 하면 된다. 크루즈 보험은

1인당 150달러이다. LA에서 플로리다까지 5월31일 야간에 출발하고 6월8일 LA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예약이 가능하고 1인당 1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평의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은 “이왕이면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가까운 캐리비안을 선택했다”면서 “경비도 적당해 평의원 이외 일반 동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여러차례 가졌던 알래스카, 바하마 크루즈를 통해서 각 지부 회장단이 서로 친해지고 그 우정이 이제까지 계속돼 궁극적으로 미주동창회가 활성화 된 점이 있다”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빨리 예약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818)395-1967(백옥자 총무국장)  
장병희 편집위원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새해에는 지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할 것”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

## 2024년 신년사

동문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기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17대 동창회를 지난 5개월 반 가량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협조로 별탈 없이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해온 일들은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지부에 장학 기금

## 8개 지부에 장학기금 1만 6500달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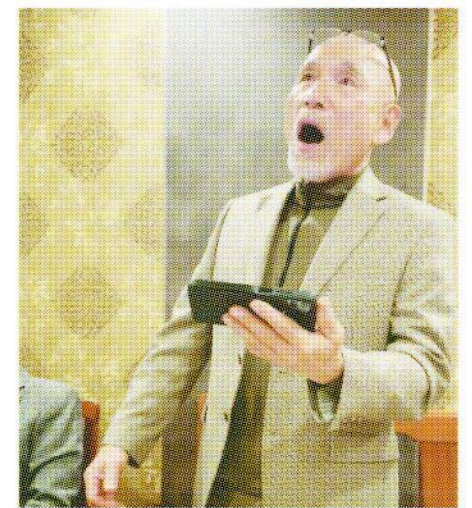
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지부에 1만6500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재정과 data base를 clear하게 하기 위해서 software 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부 방문을 몇 군데하였고 앞으로 더욱 많은 지부를 방문해 동문들의 제언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미주동창회관 확보 문제도 계속 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와 함께 여러 activity 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음악과 미술 모임 및 체육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빌며 이만 인사말을 줄 일까 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7대 미주동창회 송년 모임 “새해엔 더 열심히 봉사”



미주동창회 17대 집행부가 지난 12월 1일 LA에 있는 용수산 식당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이상강 회장.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백정현 광고국장.

제17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는 지난 12월 1일 LA한인타운 소재 한식당 용수산에서 집행부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고문을 맡고 있는 김병연, 성주경 동문을 비롯해 서치원 후원위원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백옥자

총무국장, 임춘택 재무국장, 백정현 광고국장, 박해옥 사무장 등 2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해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17대 집행부의 사업을 되돌아보며 내년에도 서울대 미주 동문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다”며 “서울에서 열린 홈커밍데이에 참가하면서 모교 및 총동창회에서 미주에 거는 기대를 잘 알게 됐다”고 2023년을 회고했다.  
그는 또 “새해에는 각 지부와 유기적인 교류와 소통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

한다”며 “미주 서울대인들이 푹푹 뭉치는데 미주동창회가 나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식사 후 임항균 섭외국장의 사회로 간단한 퀴즈와 게임이 열렸고 백정현 광고국장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 미주동창회 역대 회장 초청 ‘감사 송년회’

미주동창회 제17대 이상강 회장이 지난 12월 5일 LA한인타운 소재 한식당 용수산에서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연발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제3대 이병준 회장(상대 55), 제7대 오홍조 회장(치대 56)을 비롯해 역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병준 3대 회장은 1997년 재임 당시 서울대 미주 동문 주소록을 처음 만들었다.



유홍림 총장이 이효상, 배수옥 동문 부부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유홍림 총장, 이효상 배수옥 기부자 부부, 오세정 전 총장, 김형도 학장이 첫삽을 뜨고 있다.

## 이효상 · 배수옥 동문 부부, 모교에 300만 달러 기부

미주 동문이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옛 문리대)에 3백만달러를 기부했다.

물리천문학부 이효상(물리학과 62) 동문은 '고 김철수 교수 기념관 설립기금'으로 2020년 1백만달러를 기부하고, 올해12월 2백만달러를 일시불로 추가로 기부함으로써 총3백만달러를 건축기금으로 기부했다. 이효상 동문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김철수 지도교수로부터 전공 수업을 받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김철수 교수로부터 가르침이 토대가 되어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고액을 기부하게 된 것이다.

'김철수 물리관'으로 불려질 김철수 교수 기념관(56-1동)은 관악캠퍼스의 중앙도서관 관정관과 자연과학관 10(56동) 사이에 총 4층으로 신축되며, 1층에서 3층까지는 실험실, 회의실, 네트워크 라운

### 물리천문학부 '김철수 교수 기념관' 설립 기금 600달러 들고와 온갖 고생 끝에 비즈니스 성공

지가 들어서고 4층에는 각종 종합 연구 과제를 운용할 집단연구 클러스터로 지어진다.

이효상 동문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후 펜실베이니아의 연구전문대학인 리하이 유니버시티(Lehigh University)에서 유체역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에서 잠시 교수직을 하고 리서치 비즈니스를 세워 레이저 광학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1990년부터는 제조업(manufacturing)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헬리콥터, 여객기 등의 업그레이드와 모디피케이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조, 공급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독

보적인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효상 동문과 동문 부인 배수옥(농생대 70)씨는 미국에 올 때 6백 달러 들고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고, 부인은 아기를 키우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 정부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며, 그같은 노력과 고생이 오늘의 기부로 이어진 것 같다고 회고했다.

지난 11월 28일 기공식에서는 이효상 동문과 부인 배수옥 동문, 유홍림 총장, 오세정 전 총장과 물리천문학부 김형도 학장,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삽이 떨어졌다.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가 새로이 학문

의 열림과 어울림을 통해 학문간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SNU Commons에 물리천문학부의 김철수 물리관 건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효상박사의 큰 기부가 이같은 시발점의 초석이 됐다"고 치하했다.

김형도 학장은 "이번 기부는 이효상 동문 본인의 스승을 기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사제지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부자의 바람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효상 동문은 서울대의 학문 종합화에 기여가 되길 바라며 기념관 건축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기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동문은 비즈니스로 인해 메릴랜드, 남가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고 두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사업경영을 하고 있다.

김인중(미주동창회 고문·농생대 74)

## 남가주 동창회, 난민 돕기 '평화와 화합의 콘서트'

### 1월7일 UCI 바클레이 극장 신년 음악회 겸 성금 모금

남가주총동창회(회장 김경무)가 1월 7일 오후 4시 UC 어바인 캠퍼스의 바클레이 극장에서 전 세계 재난 난민들을 돕기 위한 '평화와 화합의 콘서트'를 타이틀로 한 동문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모교 김종섭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 오렌지카운티 한인문화센터(OCKCC), 한남체인 등이 후원한다.

음악회를 기획한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지난 12월14일 열린 LA커뮤니티 한인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2024년 새해를 나눔으로 열고 싶다. 함께 복을 나누며 덕을 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동창회가 친목을 넘어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와 문화교류, 봉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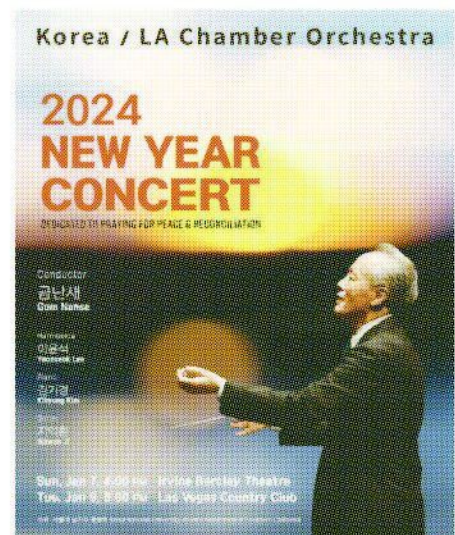
왼쪽부터 김경무 남가주총동창회장,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한인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신년음악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서울대 동문 모임이 난민 지원과 평화운동에 나서는 단체 활동에 앞장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음악회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금난새씨가 지휘한다.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씨, 피아니스트 김기경씨, 기타리스트 지익환씨 등이 코리아-LA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과 무대에 올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음악회를 주최한 남가주 총동창회 김경무 회장은 "이번 공연에서 모금된 성금은 모두 적십자와 유엔난민기금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음악회는 남가주 동문들의 열띤 성원에 750석 전석이 매진됐다.

# “동창회 덕분에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만나”

한국음악재단(KMF) 회장 정경희 동문(음대 82)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 카네기홀! 지난 11월 잔켈 홀(Zankel Hall)에서는 귀에 익숙한 한국 가곡 ‘금강산’이 흘러나왔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한, 테너 ‘팬텀 싱어’ 우승자 존 노의 카네기홀 데뷔 무대! 특이하게도 한인 성악가 공연에 타민족 클래식 팬들까지 몰려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K-클래식의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이는 한국음악재단(KMF) 회장 정경희(음대 82) 동문이다. 정경희 동문은 선화예중, 고를 거쳐 서울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1988년 뉴욕으로 건너왔다. 맨해튼 음대 석사 과정 중에 미주 총동창회가 주관한 음악회에 참여하였다가 평생 배필을 만나 미국에 정착했다. 아직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는 2017년 말부터 한국음악재단(KMF) 3대 회장을 맡았다.

프리마돈나에서 후배들의 든든한 배경으로  
1.5세 남편은 뉴욕·뉴저지 최초 한인 판사  
최근엔 임윤찬 스승 손민수 후원 콘서트

“KMF(Korea Music Foundation)는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세계 무대에 발돋움하려는 재능 있는 음악가를 선정해 뉴욕 데뷔 리사이틀을 열어줍니다. 이번 존 노의 공연이 그것이지요. 지난 40년 동안 피아니스트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피아니스트 백혜선(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교수), 첼리스트 양성원(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 등 60여 명의 연주자들이 KMF를 거쳐 갔습니다.”

## 꿈꾸던 뉴욕으로 유학

지금은 후배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일에 더 열심이지만, 정 동문은 초등학교 때 리틀엔젤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프리마돈나를 꿈꿔왔다. 13세에 미 독립 200주년 기념 북미주 6개월 순회공연을 했는데 이때의 경험은 어린 그에게 경계 없는 무한한 꿈을 꾸게 해주었다. 그는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성악가의 길을 걷는다. Delaware Valley Opera(Elizabeth Walter Voice Competition)와 Matinee Musical Club of Philadelphia(Academy of Music, Philadelphia)에서 일등으로 입상하면서 원하던 프리마돈나의 꿈도 이뤘다.

“2002년 중국 Sias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초청 독창회를 했어요. 그 당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이라서 클래식 문화에 다소 폐쇄적이었죠. 그런데 관객이 끝도 없이 몰려왔어요. 미처 입장하지 못한 분들은 추운 겨울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밖에서 들으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정 동문은 아무리 작은 연주회라도 최

선을 다한다. 음악인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그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음악으로 교감하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믿는다. 그는 현재 오리토리오 솔로리스트, Guest Soloist와 Voce Con Trio(현악트리오, 메조소프라노 이은주) 앙상블 멤버로도 활동 중이며 내년 공연 계획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시간 예술인 클래식 음악은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모든 음악인이 그렇듯이 저 역시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데뷔한 뒤 카네기홀, 링컨센터, Bronx Opera 등 수도 없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과 오리토리오 솔로리스트로 활동했어요. 중국, 남미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초청공연도 원 없이 했어요. 어릴 때 꿈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는 우리 부부 중매쟁이

그는 1.5세 교포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남편 김석영(S.Y. Kim) 변호사는 언론에도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다. 뉴욕·뉴저지 최초 한인 판사 출신으로,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의 만남이 흥미롭다.

“1989년 9월 미주 총동창회 후원으로 전 미주 순회 음악회가 기획되었는데 당시 맨해튼 음대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8명의 선배와 함께 공연하러 다녔어요.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10일간의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예정에 없던 뉴저지 공연에 지금의 시부모님이 관객으로 오셨다가 제 공연을 보신 뒤, 아드님과 만났을 적극 권하셨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남편과의 첫 데이트는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한국음악재단(KMF) 회장을 맡은 정경희 동문.

했지요. 결국 음악회를 기획해 준 서울대 미주 동창회, 특히 뉴욕동창회가 우리 부부의 중매쟁이가 된 셈입니다.”

그 당시 미주 동창회의 활약은 대단했다고 정 동문은 기억한다. 음악회를 기획한 총동창회와 각 지역 준비위원들의 철저한 준비로 모든 공연이 전 좌석 매진을 이어갔다면서, 공연이 끝나면 지역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던 일도 인상적이었던다.

“지난 동문 음악회의 성공을 되돌아보니, 동문회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더 많이 모이게 하는 힘은 ‘동문이 하는 활동을 서로 격려해 주고 응원할 때’ 생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 가족은 KMF의 든든한 지원자

그의 애초 목적대로라면 박사과정을 마친 뒤 고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되려고 했다. 그러나 1.5세 남편을 만나 미국에 정착하였고, 이민자의 눈으로 본 교포의 삶은 유학생 때와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교포들 각자 여러 형태의 고민과 어려움이 보였던 것. 그는 남편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자 적극적으로 남편을 돕는다.

그의 남편은 변호사 초기에 뉴저지 정부 일을 담당하다가 정계 인사들의 눈에 띄어 1997년 정치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민주당 공천으로 뉴저지 버겐카운티의회 출마) 1.5세 한인으로, 미 주류사회에 첫발을 댄 그의 정치적 행보는 한인 사회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남편의 정계 진출은 한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되어 열심히 도왔

어요. 남편은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항상 소수민족의 소리를 높이려고 애쓰고 많은 한인 정치인을 탄생시키는데 앞장서서 노력했어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선거에는 패했지만, 1998년 김 변호사는 뉴욕·뉴저지 한인 중에서는 최초로 판사(뉴저지 리틀퍼리) 임명을 받는다. 그는 남편의 출마만으로도 많은 한인들이 정치인, 판사 등 미 주류 사회 요직에 오르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남편의 선거를 도왔던 그가 이제는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KMF 회장 일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자잘한 뒷일을 도맡는다. 미 주류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한 아들과 두 딸 역시 든든한 지원자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KMF는 뉴욕 공연을 마친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제안으로 선배 음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다. 그는 KMF 창단 멤버이자 세종솔로리스트 김태자 초대 단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KMF와 인연을 맺었다.

“KMF 혜택을 받은 60여 명의 음악인들은 현재 K-클래식을 주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한인 음악가들의 눈부신 활약 뒤에는 KMF가 한 축을 감당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K-클래식 세계화 앞장 KMF

정 동문은 KMF 회장을 맡아 뛰어난 기획력을 발휘하였다. 첼리스트 양성원 카네기홀 연주, 3.1절 100주년 기념 공연, 뉴욕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로 소프라



자녀들 어릴 적 가족사진. 남편 김석영 변호사와 이제 주류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한 아들, 쌍둥이 두 딸은 정경희 동문의 든든한 지원자다. 남편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지를 받아 뉴저지 버겐카운티 의회에 출마했다.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 후원 콘서트를 마치고 함께 모인 KMF 회원들.



정경희 동문은 현재 Guest Soloist와 Voce Con Trio 앙상블 멤버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노 박혜상 카네기홀 데뷔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근에는 존 배 중견 조각가 자택에서 피아니스트 손민수(임윤찬의 스승)를 초청, KMF Benefit Concert를 가졌다.

“많은 한인 클래식 인재들이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지만, 후속 지원이 뒤따라야 중견 연주자로 자리 잡습니다. 음악 신동으로 인정받아도 중견 연주자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음악 인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선배인 제가 나서게 된 거지요.”

KMF는 최근 한국 메세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K-클래식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 재능 있는 연주자를 중견 연주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메세나 프로젝트 첫 수혜자는 2022년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 일등 입상자인 첼리스트 최하영으로, 내년 6월 카네기홀에서 KMF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예술은 기업의 관심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예술을 만나 창의성을 얻고, 예술은 기업을 만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얻거든요. 서로 돕는 거죠. ‘K-클래식의 세계화’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재단, 노루페인트, 벽산엔지니어링, CJ문화재단, 풍산 등인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재능을 맘껏 뽐내며 살았다’며 지난 삶을 감사한다. 그는 주류사회 지도층 인사의 아내로, 한인사회에도 힘껏 봉사했다. 이제 그는 재능 있는 후배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저는 미주동창회 덕분에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 일원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KMF를 후원해 주신, 뉴욕동창회 ‘골든클럽’ 멤버 애드워드 강, 송학린, Dr. 석창호 선배님과 우규승, 송학린, 박현자, Dr. 이선희, 한윤미, 김병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감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후배 음악가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돕는 KMF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사진=이영주 편집위원(농생대 83)

## “새해에는 자녀 결혼 고민 ‘끝’ 박수경 동문의 듀오에 맡겨요”

박수경(소비자학과 84) 동문이 이끌고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뉴욕 맨해튼에 새롭게 다시 오픈한 기념으로 2024년 2월10일 미혼 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발렌타인 이벤트를 준비하고있다.

그동안은 Los Angeles에서만 매년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동부지역에서도 요청이 빗발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 듀오측은 특히 서울대 동문과 자녀들에게 특별 할인을 한다며 아직 자녀들의 인연을 찾고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벤트는 맨해튼의 Empire State 멋진 뷰가 한눈에 들어 오는 최고급 호텔 Refinery Rooftop에서 열려 뉴욕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며 선남선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듀오 이벤트의 장점은 일대일 만남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이다. 참석한 회원들은 7분씩 스피드 미팅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으면 행사를 마치고 듀오에서 따로 소개와 만남 그리고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자란 2세와 1.5분들이다. 특히 명문대학이 즐비한 동부의 특성때문인지 회원들이 다들 훌륭한 스펙과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듀오는 신원 확인 및 입회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회원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뉴욕커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연락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한 회원은 “결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인연을 만나기가 어려웠

다”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조건에 맞는 상대를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듀오를 통해 짝을 만난 한 회원은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가보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스태프들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에 놀랐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스펙과 외모에 두 번 놀랐다”며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감사를 표했다.

듀오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이상형을 소개해주고 베테랑 매니저들이 일대일 만남과 미팅 장소까지 꼼꼼하게 챙겨줘 업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혼율을 자랑한다.

한국에서는 매년 소비자가 직접 선정해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브랜드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14년 연속 수상했다. 미국 회원이 한국 방문시에는 듀오를 통한 만남 서비스도 가능하다.

제니퍼 이 팀장은 “결혼을 위한 만남이 쉽지 않은 미국에서 듀오 아메리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인륜지대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전문회사라고 자부한다”며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을 찾기 원하는 한인 남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 맨해튼 지사 주소: 1270 Broadway #903 New York, NY 10001
- ▶문의 : (212)915-7115
- ▶홈페이지: www.duouusa.net/이벤트 담당 비양카김 (duousany@gmail.com / info@duoamerica.net)
- ▶LA문의: (213)383-2525

DUO America

# 듀오 발렌타인 데이 이벤트

FEB. 10, 2024

참가문의 : 듀오 뉴욕지사 212-915-7115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안나푸르나 트래킹(1)

# 아무런 생각 없이 걷고 싶어 떠난

▶원정기간: 2023년 11/3~13  
▶원정대원: 하기환, 이영근, 론 김, 제인 김, 고수미, 김태미(이상 재미스키협회 회원 6명)

## 그림이 현실이 되다

맘모스스키장에 있는 나의 집은 스키 클럽 회원들과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거실에는 커다란 히말라야 그림 2개가 걸려있다. 몇 년 전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을 여행했을 때 사온 그림이다. 어느 산인지 이름은 모르나 한눈에도 히말라야 봉우리를 그린 멋진 유화이다.

어느 날 히말라야에 정통한 산악인이 벽에 걸린 2개의 그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 왼쪽에 걸린 그림은 마차푸차레(Machhapuchhare 22,943ft, 6993m)인데 입산이 금지된 성스러운 산이라는 것이다. 안나푸르나 트래킹의 랜드마크 같은 신성한 산으로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었다. 네팔어로 '마차'는 물고기, '푸차레'는 꼬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마차푸차레는 '물고기 꼬리(Fish tail)'가 되는 셈이다. 정말 산의 정상이 물고기 꼬리를 닮아 있었다. 오른쪽 그림은 에베레스트로 갈 때 만나는 아마다블람(Ama Dablam 22,349ft, 6856m)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셰르파들은 원래 티베트인들이다. 그들 말로 '아마'는 어머니, '다블람' 은목걸이를 뜻한다. 그럼으로 아마다블람은 '어머니의 목걸이'라는 이름의 산인데, 마차푸차레와 더불어 미봉(峰)으로 손꼽힌다.

그 설명을 듣고 문득 히말라야로 가서 그 봉우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는 여러 일들이 겹쳐 일상이 힘들었던 때였다. 거실에 걸려 있거나 알 수 없었던 히말라야의 봉우리를 찾아 아무런 생각 없이 걷고 싶었던 것이다. 네팔은 여행으로 갔었지만 히말라야 산록을 걸어 본 적은 없었다. 만약 간다면 깊은 산속을 찾아 트래킹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동안 스키나 골프 등 운동은 계속 해 왔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은 있었으나, 산행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2년 전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야 하는 잔류어 트레일을 한구간 걸은 적이 있었다. 함께한 회원들은 무거운 짐과 고산을 넘나드는 운행과 고소증에 시달렸다. 나는 그때 별 어려움 없이 잔류어 트레일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W-trek과 아르헨티나 피츠로이 트래킹도 경험했었다.

히말라야 트래킹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자 일단 혼자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했다. 마차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바라 본 마차푸차레봉이 새벽 일출에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다.

## 문득 '그곳에 가고싶다'는 생각 홀로 시작한 여행에 대원들 동참 성스러운산 '마차푸차레' 로 간다

## 체력훈련 · 고지대 훈련하며 준비 '코로나 양성' '급체' 위기 속 출발

차레가 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과, 아마다블람이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고민이 되었다. 두산은 동쪽과 서쪽에 떨어져 있어 한쪽만 선택해야 했다. 그런 고민과 트래킹 정보를 알아보는 중에 스키회원인 론 김이 내 생각을 알게 되었다. 트래킹은 마차푸차레가 있는 안나푸르나로 결정했고 론 김 부부도 동행하기로 했다.

### 대원 6명으로 늘어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스키협회에도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었다. 트래킹에 동참하려는 회원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원정 경험이 많은 김태미, 고수미, 잔류어 트레일과 파타고니아 트래킹을 함께 했던 이영근 회장까지 동참했다. 이영근 회장은 사진작가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였

다. 팀이 더 커지면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 모두 6명으로 마감했다.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전문 트래킹회사를 통하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히말라야 트래킹 열풍은 대단했다. 일본에서도 네팔까지 직항이 없는데, 한국의 대한항공이 직항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았다. 그때 나는 LA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때문에 몹시 바빴다.

한국 여행사와 스케줄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10, 11월은 히말라야 트래킹에 가장 바쁜 시즌이었다. 이미 예약이 끝난 한국쪽에 우리 6명이 참가하는 게 쉽지 않았다. 방법은 하나. 우리가 시간과 코스를 정해 네팔 쪽에 직접 예약을 하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계획한 일정은 한국 출발 11월 3일, 한국으로의 귀환은 11월 13일, 열흘간이 주어진 시간이

였다. 마침 히말라야 트래킹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을 만나 네팔쪽 가이드를 소개받았다. 그와 상의를 하며 ABC로 루트를 결정하고 일정을 맞춰 원정계획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모처럼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가는 김에 욕심을 내기도했다. ABC까지 갔다가 요즘에 많이 도전하는 마르디히말까지 갔다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네팔 가이드의 충고를 받아들여 ABC까지만 갔다오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6명 대원의 나이가 60~76세. 나이를 볼 때나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아마 가이드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그렇게 원정날짜는 정해졌고, 각기 LA를 떠나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원들이 서울에 도착해 볼 일을 보다가 원정 시작하는 날 함께 떠나기로 했다. 체력훈련도 각자에 맡기기로 했다. 히말라야 경험자들은 고소증을 많이 걱정했으나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고산에서 스키를 많이 탄 팀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콜로라도에 다니러 갔을 때 10,000ft 이상의 고지대 산을 찾아 열심히 걷는 훈련도 했다. 출발하기 하루 전 서울에서 모든 대원이 만났다. 출국 전날 저녁에 출정식 겸 단합대회를 '서석대' 라는 식당에서 갖기로 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다. 모임이 있을 하루 전, 이영근 회장에게서 전화가

# 히말라야 여행

왔다. 내용인 즉 몸이 안 좋아 검사해 보니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말. 약을 먹으며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모른다. 출정식 하는 날에도 양성이 나오면 결국 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참으로 황당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훈련까지 열심히 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말이 없었다. 다만 출정식 저녁식사 때는 못 나와도, 그 다음날까지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다. 출국하는 날 아침에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조건 인천공항으로 나오라고 말을 전했다. 그런데 운 좋게 우리가 출정식 모임을 갖는 날 오전에 음성판정이 나왔다.

## 엄홍길 대장과 함께

11월 3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대원들은 네팔의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는 10월 달에 패서디나 우리집에서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LA방문 환영만찬에서 만났던 엄홍길 대장이 보였다. 엄홍길 대장은 유명한 산악인으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6봉을 등반한 분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휴면재단을 운영 중이다. 휴면재단은 네팔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있다. 텔런트 박상원씨 등 회원 여럿이 이번에도 봉사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비행 끝에 카트만두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홍길 대장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공항에서 헤어졌다. 우리가 카트만두에 묵을 숙소는 '여행자의 거리'라 불리는 타멜 중심에 있었다. 숙소는 오랜 전통이 있고 유명한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였다. 숙소로 들어 가는 타멜 좁은 길은 온갖 상점에 들어 찬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튿날 우리는 국내선 비행기로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로 이동해서 바로 트래킹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한 뒤 엄홍길 대장과 약속한 식당을 찾았다. 한국식당인줄 알았는데 엄대장과 가까이 지내는 네팔인이 운영하는 샤브샤브집이었다. 규모도 크고 깔끔했다. 네팔에서 놀란 것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네팔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코리아 드림이라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네팔인들에게는 꿈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엄대장 일행과 어우러진 우리는 함께 축하의 잔을 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힘이 들 산행을 생각하여 에너지 충전 욕심으로 열심히 먹었다. 미국에서 먹던 샤브샤브하고는 맛에서 많은 차이가 났지만 나름 먹을 만했다. 엄대장은 이번 우리의 트래킹에 대해 자세히 조언해 주었고, 고맙게도 저녁식사

계산까지 해주었다. 엄 대장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 온 그날 밤 나에게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다.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깨었는데 갑자기 식은 땀과 함께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천장이 빙빙 돌고 메스꺼려 토하고 어지러워서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했다. 연락을 받은 론 김이 내 방으로 오더니 깜짝 놀란다. 응급상황이었다. 즉시 미국에 전화를 걸었다. 의사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방을 해 줬다. 늦은 시간임에도 론 김이 처방대로 약을 구해와 복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 오는데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멀고 먼 네팔에서의 돌발상황. 별별 생각이 다 든다. 먹은 음식이 체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다. 혹시 뇌졸중(stroke)이라도 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상태라면 트래킹을 포기하고 여기 남아 있어야 할 것이었다. 오전 내내 침대에서 누워 보냈다. 일단, 우리 팀 계획이 변경됐다. 그날 오전 포카라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 날로 미루었다. 다른 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약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언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전날 샤브샤브 과식으로 인한 급체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힘든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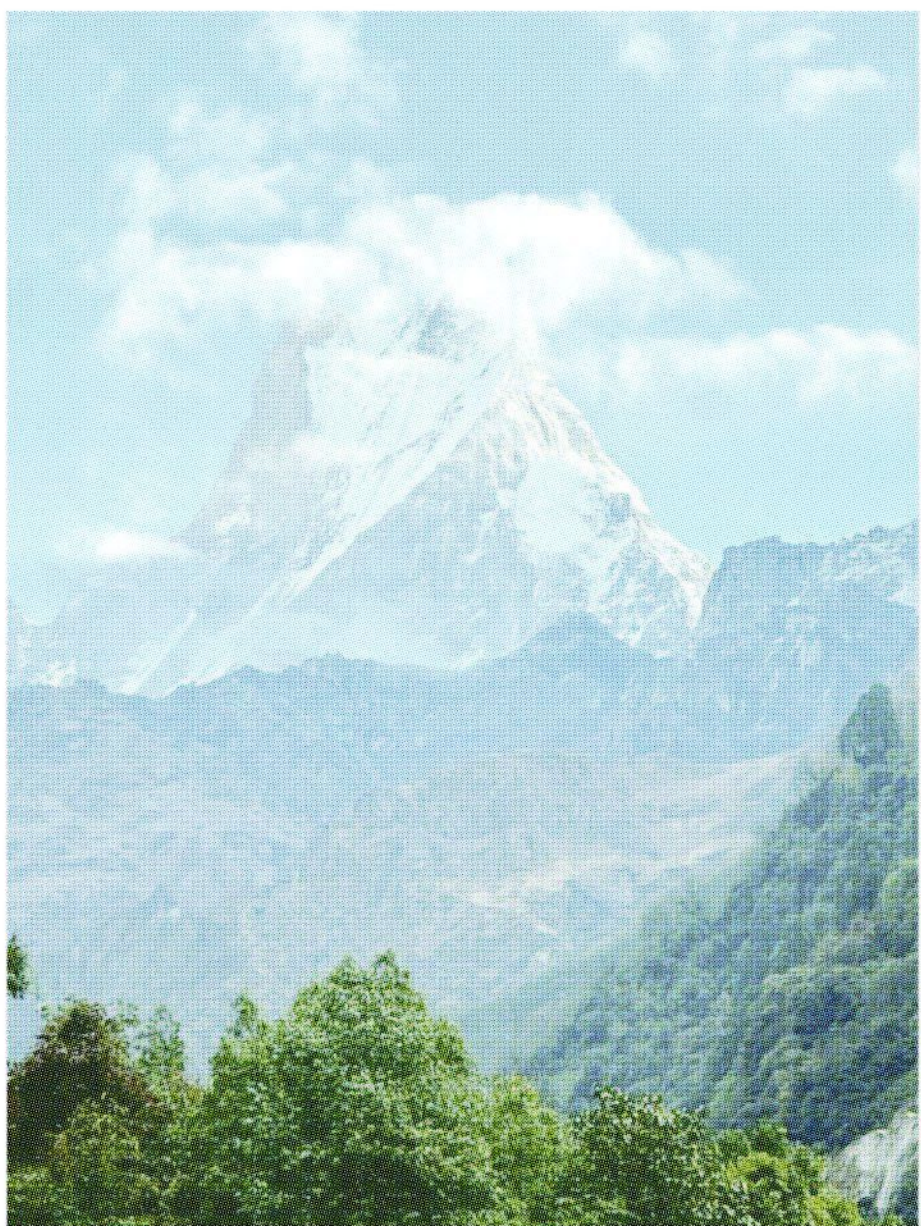
하루를 더 카트만두에 머문 덕분에 대원들은 관광을 할 수 있었다. 등산장비점이 즐비한 타멜거리, 그리고 고대 네팔의 왕궁이었던 더르바르 광장. 원숭이 신을 모신 하누만 도카 사원, 네팔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라는 하나 지금은 힌두교가 국교이다.

많은 힌두교인이 찾고 있는 광장의 고풍스러운목재 유적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이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카트만두 관광을 끝내고 그 다음 날 가이드 디팍과 카트만두 국내선 공항으로 향했다. 네팔에 입국한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포카라행 프로펠러 비행기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니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음이 요란했다.

(계속)

\*이 글은 하기환 동문이 한국 조선일보에 기고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래킹 여행기다. 매주 한차례씩 3번에 걸쳐 연재됐다. 동창회보도 시리즈로 소개한다.



히말라야 마차푸차레봉. 네팔말로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그대로다.



트래킹 대원들이 카트만두의 한 샤브샤브집에서 엄홍길(가운데) 대장과 저녁식사를 했다.



히말라야 트래킹에 나선 재미스키협회 6명의 대원들. 론 김 제인 김 부부, 고수미, 하기환, 김태미, 이영근 대원. (왼쪽부터)

# 새해는 푸른 용처럼 힘차게 날아오르자!



장소현  
(미대 65, 시인)

2024년 새해는 용의 해, 그중에서도 푸른 용(靑龍)의 해다.

새해의 모든 날들이 밝고 힘찬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용은 5천여년 긴 세월 동안 우리 동양인의 정신세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상징적 존재다. 다양한 문헌의 기록과 신비로운 신화전설, 민간신앙, 미술작품에 등장한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중국의 옛 문헌에 따르면, 용은 동물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추고 조화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明珠)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逆鱗)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다양한 상상의 동물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해하



고구려 고분벽화 강서대묘 사신도 중 청룡도

##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우리 전통에 큰 영향 입신출세,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길몽 중 으뜸

고 섬겼다. 흔히 ‘사령’이라고 부르는 용, 봉황, 기린, 거북이 대표적이지만, 그 크고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감탄하게 된다. 현대의 공상과학 판타지 소설보다 더 다채롭다.

여기에 불교적 요소와 우리의 창조력이 더해져 우리의 용이 완성되었다.

우선, 용은 운행우시(雲行雨施), 즉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조화능력을 지닌 수신(水神)으로 천둥, 번개, 구름, 비 등을 관장하며, 용왕이나 용궁 등에서 알 수 있듯 바다의 신이기도 하다.

“용은 물에서 낳으며, 그 색깔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능력이 있는 신이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고

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용은 높이 오르거나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아래로 들어가자 하면 깊은 샘 속으로 잠길 수도 있는 변화무일(變化無日)하고 상하무시(上下無時)한 신이다.”(『관자(管子)』 수지편)

이렇게 용은 농사와 어업을 주관하는 존재로 민간신앙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용에게 비는 거국적인 의식인 기우제, 용왕굿, 용신제 등의 용신신앙(龍神信仰)은 생명의 원천이며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용은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신라시대의 호국사찰 황

룡사가 대표적이며, 만파식적(萬波息笛), 처용량 등 많은 설화가 전해온다. 자고로 민족이 융성하고 국운이 왕성할 때의 용은 힘차고 용맹스러운 자태로 민중 앞에 군림하였다.

용이 꿈꾸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승천이다. 동양의 용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의주(如意珠)라는 구슬을 지녀야만 한다. 용의 승천은 곧 민족의 포부요 희망으로 상징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왕권과 왕위를 상징하는 용이다. 용비어천가 같은 문헌이 대표적이다.

왕의 얼굴을 용안(龍顔), 덕을 용덕(龍德), 지위를 용위(龍位),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 앉는 평상을 용상(龍床)이라고 부르는 등 왕에 관한 것에는 용(龍)자가 붙어 있는 것도 같은 뜻이다. 임금의 옷인 곤룡포(袞龍袍)의 가슴과 등, 양어깨에는 용이 금실 수로 장식되어 있다.

옛 미술에도 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중요한 소재다.

대표적인 예로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의 용뉴와 이수, 백제의 용문전, 고려의 귀부, 조선조의 청화백자나 용민화(民畵) 등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있다.

현실적으로 용은 출세의 상징이기도 하다. 등용문을 통과해야 승승장구 날아올 수 있다. 행운을 불러온다는 용꿈도 있다. 물론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용이 되는 미꾸라지도 거의 없는 세상이지만, 용꿈만 잘 꾸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갑진년 한 해, 모두들 청룡처럼 상서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용꿈 많이 꾸시기를!! 제발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기를!!

무엇보다도 청룡의 막강한 힘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기를 빌고 또 빈다.

# 덕담으로 새해 희망과 성취의 씨앗을 뿌리자



이원익  
(문리 73)

고국에서 설날을 맞으면 전통적으로 일가친척이나 어른, 친구, 친지들을 찾아 세배를 하는 풍속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는 으레 덕담을 나누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풍속은 해외의 한인 사회에서도 형태와 내용을 바꾸고 다듬어 가며 나름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인다.

아시다시피 덕담이란 해가 바뀌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말이다.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기만을 다소 공허하게 먼저 바라는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축하를 하며 덧붙여 장래의 일을 비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아드님 혼사가 정해지셨다지요? 다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든지 “쾌차하셨다니 천만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내내 건강하십시오.” 같은 식으로 말을 건넸다고 한다.

물론 덕담을 받는 쪽에서도 “고맙네, 자네도 이제 혼기가 찼네그려. 곧 장가

들게나!” 라든지 “다들 걱정해 준 덕분에 회복된 것 같네. 고맙네. 다들 평안하시는지? 새해에도 모두 별 탈 없이 잘 지내시게나.” 등으로 답을 했음직하다.

그런데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에 대한 어떤 영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소리에는 신비한 힘이 들어 있어서 ‘무엇이 어떻다’ 하고 말을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험이 퍼져 나간다는 믿음이다. 곧, ‘말이 씨가 되어’ 싹이 트고 자랄 준비를 하게 될 테니까 연초에 좋은 말의 씨를 두루 뿌려 두는 것이 새해 덕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요 내 가족이나 동아리, 그리고 내가 몸 담은 각 모듬살이의 엔진은 서로

의 말 한 마디에 순조롭고 힘차게 새 시동이 걸릴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앞날에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며 그 성취의 예측은 신념과 확신이 되어 어느 곁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굳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니 지난하였지만 한편 다행스러웠던 2023년이 이제 저물어 간다.

예전처럼 일일이 기정사실을 먼저 언급하며 덕담 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도 이 참에 인생의 많은 스승님과 벗들, 이웃들,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께 삼가 소박한 덕담을 받들어 올린다.

“그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모든 분들이 주위와 좋은 인연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도 화기애애하게 얼굴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최운화(상대78) 동문의 새해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안정 속에 성장 폭은 둔화될 듯

2024년 경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23년 경제가 전망과 달리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인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준의 FOMC에서 금리 동결은 물론, 2024년에 금리 인하를 3차례 할 것이라

는 사실을 발표했기에 더욱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대 출신으로 LA지역 유니티뱅크와 CKB뱅크 은행장을 지낸 최운화(상대 78) 동문을 초청해 새해 경제 전망을 들어봤다. 최 동문은 사모펀드인 '퀀텀 그룹' 대표로 투자에도 관여하는 등 실물 경제에도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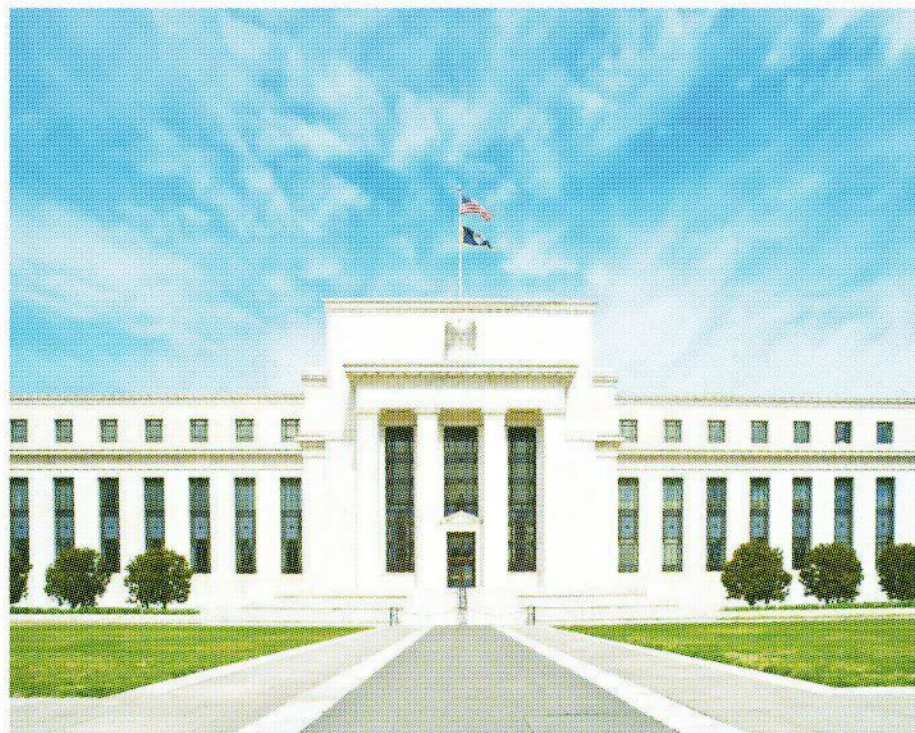


최운화  
(상대 78)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미국 경제 뉴스는 2023년은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화두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고금리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없는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소위 '골디락 현상'이 나타나, 새해 2024년의 경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경제 성장 폭이 둔화해 저성장 기조가 주축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몇 가지 지표와 전문가들의 예측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첫째, 경제 성장은 2023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장이



2024년 새해에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결국 2%대 인플레이션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상반기 말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워싱턴DC 소재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건물.

## 2024년 금리인하 세 차례, 상반기말부터 가능 고용시장 수요공급 균형, 주식시장은 보험세

둔화된다는 의미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계속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연말 내지는 2025년도 초에 이르면 연방준비목표로 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고용은 2023년 말에 약간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하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고용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있어 2024년에도 고용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고용 시장도 균

형점 즉, 고용 수요가 줄게 되면서 공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금리는 고용 시장의 강세가 뚜렷하게 줄어든 이후 연준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 말 쯤부터 인하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기업 이익은 인건비 상승세 둔화로 비용면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소비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의 보험세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어지는 긍정적 요인이 있어 큰 변동은 예상되지 않는다.

▶일곱째, 아직도 사무직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재택 근무에 적응하면서 사무실 건물의 공실을 증가와 이에 따른 임대료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만성적 재고 부족인 주택 시장에서의 신규 주택 건설은 그런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건설 대출 비용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다른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안정되고 있어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높은 금리로 인해 거래는 제한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투자 위축...美 성장률 1%로 떨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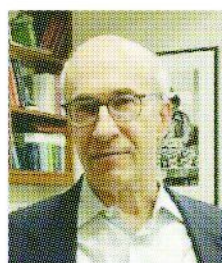
세계적 경제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 기준 미국 1%, 중국 2~3% 등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IMF의 올해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1%, 5.0%임을 감안하면 내년엔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이 반 토막

이 난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미국 경기 둔화 원인을 묻자 로고프 교수는 “내년부터 고금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정정책까지 긴축으로 전환되며 소비와 투자를 모두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약 10년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다. 다만



할을 하기 때문이다.

로고프 교수는 “올해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가 크게 둔화되며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경제를 가라앉게 만들 것”이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 중 30년 장기 비중이 늘어나면서 충격 완화역

라며 “자동차 구매, 개인 대출 등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둔화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경제가 더 둔화될 것이고 이게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 로고프 교수는 “2025년이 오기 전까지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임금 상승률도 더 둔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권식 · 조성구 동문, 지부 장학사업에 ‘통큰 기부’

## 미네소타 지부

### 연말총회 겸 파티 특강 및 장학금 지급

미네소타 지부는 지난 12월 9일 40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의 마지막 행사인 지부 총회 겸 연말파티를 개최했다. 용정식 회장(농화학 86)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교가 제창과 자기소개 시간을 갖는 식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동문 근황 소개시간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두개의 큰 뉴스가 소개되었다.

첫번째는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의 오랜 멤버인 김권식(공대 61) 박사가 본인이 CEO로 재직중인 EVS Engineering 본사에서 맛있는 한국음식을 곁한 토크쇼를 개최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황효숙(사대65 · CEO of Nanodyne) 동문이 미주동창회 차기회장에 당선됐다는 것이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미네소타 지부는 전통적으로 학부와 대학원 포함 서울대 출신으로 미네소타 지역 대학에 석박사 학위과정이나 포스트닥으로 유학 온 동문들에게 지원서를 받아 심사 후 선정자를 결정해 매년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학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성육진 재무간사(치대 87), 변정민 학술간사(공대 88), 양한승 총무이사(임산가공 89)의 리뷰를 거쳐 7명의 지원자들 중 이수정(기계공학 13) 김희준(물리 13)



지난 12월9일 열린 연말총회 겸 파티에 참석한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과 가족들.

안유이(의류 석사 17) 손민영(지구환경 석사 19) 등 4명을 수여자로 선정했다.

미네소타 지부는 동문회 운영비와는 별도로 장학기금 펀드레이징을 통해 선배들로부터 기부형식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5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미네소타 지부 자체에서 지원하는 2명 외에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님의 지원으로 2명을 더 선정해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후 식순은 매년 연말총회에서 제공하는 특강 순서였다. 올해는 미네소타대학에 재직하는 용정식 지부 회장(Department of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and Biophysics)이 'From Genes to Precision Medicine: The Future of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토크를 했다. 이 강의에서 용정식 동문



2023년 미네소타 동문회 장학금을 수여받은 서울대 출신 학생들. 왼쪽부터 이수정(기계항공 13), 김희준(물리 13), 안유이(의류 석사 17), 손민영(지구환경 석사 19)

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현대 과학의 발전 덕분에 인간 유전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decod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전체의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현대 의학에 적용이 될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후 경품 추첨을 통해 타겟 선불카드를 25명에게 증정하는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단체사진 촬영과 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의 2023년 마지막 이벤트는 막을 내렸다.

## 선배들 물심양면 지원 ...장학사업 새 도전 앞둔 미네소타

미네소타 지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부 운영방식과 재무관리 모델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

### ▶동문회의 1년 운영 방식

미네소타 지부의 1년 사업은 보통 회장과 총무 그리고 학생간사와 재무간사들로 이루어지는 집행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1차 이사회에서 1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행사 요소들을 발표하고 승

인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때 회장이 유의하는 것들은 행사의 주기가 가급적 일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시기로 몰리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OM(old member)와 YM(young member)들이 각각의 모임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다양화하고 각각의 그룹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를 위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OM과 YM이 같이 만나 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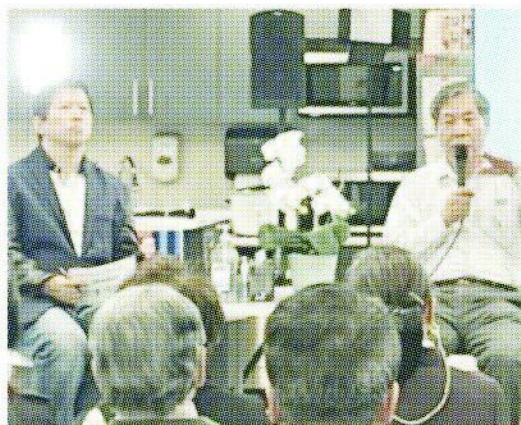
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사계획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골프모임 등을 OM행사의 주 행사로 잡고 날씨가 좋은 시기에 한 두번 개최하여 OM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YM들을 위해서는 가을 학기 초에 신입생 모임이나 학생들을 위한 academic seminar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울대 모임은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 전체에도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봄 가을로 전체 야유회 모임을 가져 전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한 YM들은 학기말마다 따로 식사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다지고 많은 경우 회장이나 총무가 참여해 OM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 둔다.

특히 이런 모임을 통해 YM들이 동문회를 통해 이루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계기를 만든다.

(11면으로 계속)



지난 5월 열린 김권식 동문의 토크 콘서트.



지난 6월 차기 회장 정견 발표를 하는 황효숙 동문.



가을 야유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브라이스 캐년 겨울 설경 촬영기

# 억겁의 시간, 대자연이 빚어낸 환상적 풍경



이기우  
(문리대 물리학과 67)



이기우 동문은 사진을 보내오면서 그 사진 속에 사람이 한 명 있다며 잘 찾아보라고 했다.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사람이 찍힌 사진을 따로 보내왔다. 다시 보니 그날 그곳을 하이킹하던 사람이 보였다. 동문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사진 맨 왼쪽 후두가 길과 만나는 부분에 까만 점이 보인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희망찬 일년을 다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정들을 계획하게 된다. 나는 몇 년간 1월만 되면 하얀 눈으로 뒤덮힌 광활한 대자연, 특히 브라이스 캐년(Bryce Canyon)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자 계획을 하였다. 그러나 거듭 몇 번을 겨울 눈사태로 인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3년을 계속 시도한 끝에 2019년 1월 초 마침내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라스베가스에도착하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유타주에 접어들면서 진눈깨비로 바뀌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지 함박눈으로 바뀌었다. 비가 눈으로 바뀌자 새하얀 설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눈길에 걱정됐다. 캄캄한 밤길을 눈이 쌓인 도로를 헤치며 달려가 목적지인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해 일단 숙소에서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보니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진 장비를 가지고 캐년 정문에 가니 문이 닫혀 있었고, 모든 뷰 포인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위는 온통 눈으로 쌓여 있어서 숙소로 돌아가 근처

를 걸어다니며 눈이 그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숙소에서 이틀을 묵은 후 눈은 좀 뜸해졌으나 캐년은 제설작업이 한창이었고 공원 요금소와 방문자 안내소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지도를 살폈다.

내가 사진 찍기를 좋아 했던 곳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지금 숙소에 며칠간 더 묵기로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갔다 오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그곳이 바로 팩토리 뷰트(Factory Butte)다.

팩토리 뷰트로 가는 12번 도로는 구불구불한 산 길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길이다. 가을의 풍경을 담고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도로다. 소복소복 쌓였던 추억을 회상하며 달리는 지금은 함박눈에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

간간이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도 담아 보고, 얼어붙은 몸도 녹일 겸 커피도 마시며, 아름답게 눈으로 단장한 자작나무 숲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기를 눈에 갖다 대며 첫

터 소리를 낸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만끽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허락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갖게 된다.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되며 차를 몰아 팩토리 뷰트를 만나러 달려갔다. 저 멀리 웅장하게 그러나 외롭게 서있는 팩토리 뷰트를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는 나를 보게된다.

고대의 느낌을 주며 땅을 돌아다니는 공룡을 상상하게 되고 녹은 용암이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오랫동안 잊혀진 푸른 바다를 보고 있는 나를. 나는 지금 이곳에서 눈으로 이곳 저곳 덮여서 더욱 더 포근해 보이고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한 동안 사진기에 담아 왔다. 언제 한 번 팩토리 뷰트에 관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싶다.

해가 지는 노을을 뒤로 하고 다시 산길을 달려야 하기에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어둑어둑 해지는 길을 헤치며 브라이스 캐년으로 차를 몰았다. 눈이 쌓인 도로를 헤치며 달려 캄캄한 밤 중 브라이스 캐년에 도착하니 다시금 부슬

부슬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숙소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녹이며 잠을 청하지만 밤새도록 눈이 내리니 “내일 사진 찍을 수가 없겠네!” 하며 설 친 잠. 그러나! 아침에 창 밖을 보니 눈은 이제 내리지 않고 맑게 개인 새벽 하늘이 보였다. 나는 벼락 같이 빠른 걸음으로 아래로 내려가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브라이스 캐년으로 달려갔다. 그 간 제설 작업은 훌륭히 마쳤고 며칠전에 다 닫혀져 있던 뷰 포인트들 중 오늘은 한 곳을 열어 놓았다. 차를 파킹하고 부지런히 산으로 올라 갔다.

마침내 새벽의 아름다운 환상적인 자연의 모습. 나는 따스한 빛과 안개와 함께 덩실 덩실 춤을 추며 환상의 날개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 하나가 빗물, 바람, 물이 오랜 기간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수 만개의 적색 첨탑 후두(Hoodoo)는 지금 밤새도록 내린 눈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다. 석회질이 풍부한 이 암석 기둥은 사람 키만한 작고 올망졸망한 것부터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들까지 다양한 크기이다.

이 아름다운 정경속에 빠져 있노라니, 한 쪽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는 듯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천상의 가수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듯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발레리나가 춤을 추며 구름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더욱 확대된 시야 속에 들어온 새파란 하늘과 대담한 붉은색 바위들은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또렷이 보인다. 시간과 자연의 위대한 협업, 그 작은 역사의 조각이나 잘 나를 목격하고 느낄 수 있게 된 나의 경험은 실로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일 중의 하나가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해 준다.

▶미네소타 지부 운영 원동력

한 모임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두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 당연히 사람이고 둘째, 모임이 구성원들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둘째 요소에는 금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

미네소타의 재정은 이사회비를 회계의 기본구성으로 이용한다. 이사회비는 이사회에 소속된 동문들의 기부로 이루어진다. 이사회 멤버는 졸업한지 20년이 되거나 넘는 학번을 가진 동문들을 포함시킨다. 이는 졸업하고 20년이 지난 동문들은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젊은 학번의 동문이 참석하면 20년이라는 기준보다 어리더라도 이사회 멤버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선배 동문들은 회장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사회비 외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사 보조비나 일반 후원금 명목으로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덕에 회장단과 집행부는 동문회 구성원들이 결속을 다지고 동문회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 집중하

게 된다. 따라서 미네소타 지부의 운영 원동력은 동문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신규 소통, 이사회 멤버들의 기부 그리고 동문회 행사에 참석해 결속을 다지려는 모든 동문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미네소타 지부는 2024년도에도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계속 되어가도록 회장단과 집행부 일동은 부단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미네소타 지부의 연말 총회 즈음 두가지 큰 뉴스가 회장단에게 전해졌다. 김권식 동문이 지부 장학사업에 기부 의사를 밝혔고 이어 조성구 동문(의대 59)도 기부 뜻을 밝혀왔다. 이를 계기로 미

네소타 지부는 장학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기부받은 상당액의 장학금은 돈의 가치를 넘어 선배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것이기에 단순히 일년에 얼마씩 배분하여 소멸시키지 않고 선배 동문들의 정신을 기리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장단은 이를 계기로 현재 미네소타 지부내에서 새로운 장학 사업 initiative를 구상하고 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미네소타 지부는 이번 initiative를 기회로 좀더 창조적인 장학사업 모델에 도전하려고 한다.

글 · 사진=용정식(농화학 86) 지부 회장



시카고 지역 동문들이 지난 11월26일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문과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조규승 차기 회장 “앞으로 1년 열심히 봉사하겠다”

## 시카고 지부

시카고서울대동창회가 지난 11월26일 샴버그 소재 골프클럽에서 2023년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참석, 동문들간 우의를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김훈태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첫 순서로 황찬주 동문의 장남 소크라테스 황이 실로폰 독주를 선보였다.

한의일 동문의 선도로 교가를 제창한데 이어 올해 작고한 동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치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수고한 임원진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IRS 등록 문제 등 현안 관련해 간단하게 소식을 알렸다. 아울러 관악클럽 및 골든클럽 등 산하 모임에 대해서도 근황을 전하면서 “연말연시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총회의 다음 순서로 봉윤식 총무의 2023년 행사 보고 및 1-2차 이사회 내용 보고가 이어졌으며 곧바로 이준수

## 2023년 총회 및 연말 파티 100여명 참석 장학기금 연초 16만달러에서 19만달러로

재무가 회계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총액은 4만4천불 가량으로서 큰 변화가 없지만 장학기금은 연초 16만불에서 주식시장 활황으로 19만까지 증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일 장학위원장은 장학기금 상세내역을 발표하면서 현명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장학기금은 2개 ETF로 분산돼 예치된 상태며 해가 갈수록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단상에 오른 황치룡 회장이 IRS 관련해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그는 “시카고 동문회가 비영리기관으로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으나 비전문가인 우리끼리 하기는 힘들었던 관계로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고 이런 작업에는 다소 비용이 든다”며 총회의

승인을 촉구했다.

황회장이 밝힌 예상 경비는 3천불 가량이며 총회는 박수로 승인했다. IRS 등 등록 문제 해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길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행사의 백미인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는 김미지 학생 등 8인이 선정됐다. 김양은 “나도 한국에서 공부했다라면 서울대를 목표로 했을 것”이라며 “그런 학교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학업을 마치고 국가고시 합격 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장학금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게 돼 감사하다. 한인들을 상대로 봉사하겠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총회에서는 차기 및 차차기 회장, 임원진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24년도 회장으로 선임된 조규승 동문은 “앞으로 1년 동안 집행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봉

사하겠다”며 총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조 차기회장은 한재은 감사에게 1년 더 임기를 연장할 것을 요청, 수락을 받았으며 차세대 90년대 학번인 김수현 동문도 함께 감사에 선임했다.

차차기 회장 인선위원장을 맡은 김승주 전회장은 지난 2차 이사회 때 이미 인준을 받은 바 있는 정성일 동문(공대86)을 다시 소개했으며 곧바로 총회의 제청 및 인준을 받았다. 정 동문은 “너무 중요한 일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곧이어 김승주 전회장에게 시카고 동창회 감사패 및 미주 총동창회 공로패가 증정됐으며 골든클럽 및 관악클럽, 세종문화회 활동 내역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박종희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은 “서울대동창회에서 발족시킨 이래 20년째 원만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행사가 계속 예정돼 있으니 많은 성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봉윤식(사회대 96)

# 연임 성영주 회장 “내년에는 장학회 활동도 힘쓸 것”

## 밴쿠버 지부

## 총회 및 송년모임 개최 회비 100달러로 인상

서울대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회장 성영주)가 지난 12월3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모임과 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시작한 1부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 칭찬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진 2부 식사에서는 프리미엄 와인이 곁들여진 스페셜 크리스마스 디너 뷔페로 동문들을 대접했다.

축하공연 순서도 준비돼 홍보이사를



지난 12월3일 열린 송년모임에 참석한 밴쿠버 동문들.

말고 있는 조경자 동문과 새로 재무이사 된 송태영 동문 부부의 큰딸 송다윤양이 우리 전통악기인 해금과 아쟁 연주를 들려줬다. 이후 다 함께 ‘진도아리랑’을 배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년센스 퀴즈와 와 뇌섹 퀴즈 맞추기, 흥미진진한 래플 추첨 그리고 노래자랑 순서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동문들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라는 송년 인사와 다가올 새해 축복 인사를 전하

며 송년 모임을 마무리했다.

한편, 밴쿠버 지부는 이날 2024년도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새로 임명했는데 회장은 성영주(간호대 86) 동문이 연임하기로 했다. 이명규(농공학과 69) 부회장, 조경자(국악과 86) 홍보이사, 박경미(기악과 86) 친선이사도 연임하기로 했고 송태영(해양학과 84) 동문이 재무이사, 송대성(농공학과 91) 동문이 총무이사로 새로 합류했다.

성영주 회장은 이날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은 장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을 겸임한다”며 “내년부터는 동창회 활동과 더불어 장학회 활동도 성실히 이어나갈 예정이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밴쿠버 지부는 또한 내년 부터 동창회 회비를 1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부 회원은 합쳐서 100달러다. 글·사진=성영주(간호대 86)

# 장학사업 2년 만에 모금 · 장학생 선발 ‘반석에’

## 워싱턴주

### 송년회, 동문 37명 참석 다양한 게임 즐기며 친목

워싱턴주 동문회(회장 임헌민)는 지난 12월9일 코로나 이전 몇년 전부터 이명자 전 동문회장(간호대 74)의 예약 도움으로 송년회 장소로 사용해온 벨뷰에 있는 송년회 최적의 장소 뉴포트 요트 클럽(Newport Yacht Club)에서 송년회 모임을 개최했다.

행사 일주일 전 준비 모임을 가졌던 준비 위원들이 1시간 이른 오전 11시부터 나와 짐을 나르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 준비, 프로젝트, 마이크 셋업 등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2시가 되자 차례로 도착한 동문들은 준비된 와인을 마시며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12시 30분에 임헌민 회장(공대 기계 84)의 개회사와 함께 총회가 시작되었다.

총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가까이 공들여 작업한 워싱턴주 동문 주소록 Update 및 신규 주소록 제작, 배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주소록 작업에는 임헌민 회장, 이정관 총무(농대 농기계 83) 외에도 서연진(자원공학과 93) 홍미영(약학 대학원 92) 두 동문이 고맙게도 자원봉사를 해줬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바쁜 와중에도 워싱턴주 동문회를 위해 회계 총무로 수고한 정태환 동문(컴퓨터 공학 89)은 올해 송은주 동문(간호대 85)에게 이미 회계 총무직을 넘겨 주었지만 마지막 회계 보고까지 잘해주었고, 회계 감사는 예년처럼 김인배 동문(수의대 59)이 재미있는 유머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2023년은 2년 전 워싱턴주 동문회 사상 최초로 시작한 장학사업의 제 1기 장학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해다.



지난 12월9일 뉴포트 요트클럽에서 열린 송년모임에 참석한 워싱턴주 지부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년전 장학 사업 Kick-off 회의 중 열떨결에 지명되었지만 타고난 솔선수범과 리더십으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사업의 기반을 매우 잘 다져 놓은 김재훈 장학위원장(공대 72)은 이명자 전 동문회장에게 제 2대 장학위원장 자리를 넘겨줬다. 이명자 전 회장은 그동안에도 장학위원회에 몰심 양면 많은 실질적 도움을 줬다.

제1기 장학위원회 총무는 이정관 동문회 총무가 겸직해왔는데 그동안 역시 장학위원회에서 헌신해온 정은구(치의예 92) 동문이 모두의 동의 아래 장학위원회 총무를 맡기로 했다.

제 1기 장학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줌 회의를 통해 장학위원회 회칙을 수립하고 장학신청서 양식을 제작하고 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 워싱턴주 챗터를 따로 만들어 장학신청서를 Online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2년간 총 5만580달러의 장학 기금을 동문들로부터

모금해 총 15명의 장학생을 선발, 학생당 각 1000 달러씩 총 1만5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임헌민 회장이 2023년 동안 새로 등록된 동문과 아쉽게도 워싱턴주를 떠난 동문 등 워싱턴 동문회에 있었던 동문들의 변화를 소개했고 오후 1시 부터는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동문의 부인인 김명호 사모님이 발굴한 IAMBANCHAN이라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배달한 음식이었는데 다양하고 맛있어 모두들 매우 좋아했다.

이어 2시부터는 게임과 여흥 시간을 가졌는데 이정관 총무가 기타를 치며 싱어롱으로 ‘토요일 밤에’와 ‘언덕에 올라’를 다같이 불렀고 테이블 구성을 다시 하여 원로 선배들과 젊은 후배들이 적당히 섞여진 뒤 테이블간 대항 게임을 즐겼다.

‘동물원에 가면’ 게임에서는 박한규 동문(컴퓨터 공학 91)과 이재익 동문(의

예 88) 부인이 치열한 우승전을 펼쳤는데 이재익 동문 부인의 승리로 이 동문 부인이 속한 테이블은 모두 옥수수차 1박스를 우승 상품으로 받았다.

이승윤 동문(자원공학과 90)이 제안한 ‘탁구공 게임’은 처음에는 모두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망설여 하다가 몇번의 연습을 거쳐 익숙해지자 눈에 불을 켜고 테이블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임헌민 회장 부부가 제안한 ‘컵쌓기 게임’은 우승 테이블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Extra 게임 신청을 받아 연장 진행했을 만큼 재미있어 올해 송년회 행사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컵 쌓기 게임을 끝으로 총 37 동문이 참석한 송년회는 예정대로 4시에 끝을 마쳤고 이명자 전 회장은 돌아가는 동문들에게 개별포장한 떡을 선물로 주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덕담으로 빌어줬다.

글 · 사진=이정관(농생대 83)



왼쪽부터 탁구공 게임을 하는 동문들. 이날 게임의 하이라이트인 컵쌓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문들. '동물원 게임'우승 테이블 동문들이 상품으로 받은 옥수수차를 들여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지부



필라델피아 지부 송년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소음악회를 멋지게 꾸민 소프라노 김성지, 바리톤 유영광 동문.



건강 특강 · 소음악회 · 경품 추첨까지 알찬 송년 모임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심회진 · 음대 90) 송년모임이 12월 2일 오후 3시 필라델피아 감리교회에서 동문과 배우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오남환(농생대 68) 동문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주제로 한 특강이었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강의는 건강한 식품과 조리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

동문 · 가족 등 50여명 참석 '즐거운 시간'

용을 구체적으로 다뤄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간의 제약으로 쏟아지는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다. 즐거운 저녁 식사 후 이어진 2부에는 음대 동문들의 소음악회가 있었다. 소프라노 김성지(음대 92) 바리톤 유영광(음대

04) 동문이 피아니스트 소영미씨의 반주에 맞춰 유명 아리아와 가곡들을 선보였다. 끊이지 않는 박수 갈채에 두 동문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All I ask of you"를 앙코르 곡으로 연주해 더 큰 박수를 받았다. 3부에는 경품 추첨이 있었다. 여러 생

필품들이 상품으로 준비되었고, 모든 동문들이 골고루 상품을 받아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동문회 나오고 처음 경품 추첨이 되었다는 동문들도 여럿 있었다. 이문환(상대 78) 동문이 기증한 1등상인 Air Fryer Toaster Oven은 조정현(수외대 58) 동문에게 돌아갔다. 임원단에서 준비한 타월과 불펜 등 기념품을 챙긴 동문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풍성한 송년모임을 마쳤다.

창립 50주년 앞두고 화보집 제작...초대 회장은 임덕상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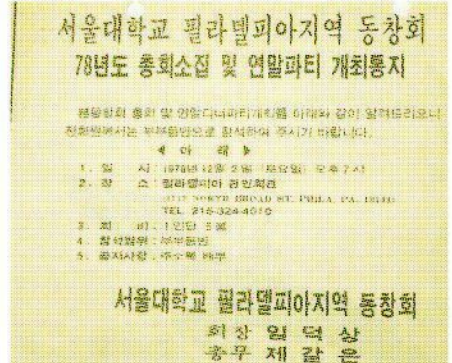
필라 지부 역사

필라델피아 지부가 2027년 지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기념 화보집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제 46대 심회진(음대 90) 회장은 "동문들에게 갖고 있는 동창회 관련 옛날 사진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진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화보집을 제작할 지 아직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지부는 1977년 당시 U-Penn 문리대 수학과 과장이었던 임덕상(문리대 46) 박사가 초대회장을 맡아 결성됐으며 이후 46년을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미주에서는 거의 가장 먼저 만들어진 유서 깊은 서울대 동창회인 셈이다. 필라델피아 지부의 정홍택(상대 61) 동문이 지부 초창기 역사를 담은 글을 보내왔다.



▶태동기 무려 59개의 대학이 밀집해 있는 교육도시 필라델피아에는 1960년대에 벌써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아이비리그 학과



1978년 필라델피아 교포 일간지에 실린 필라델피아 동창회 창립 총회 광고. 연말파티를 겸한 첫 모임에는 무려 60명이 넘는 동문, 가족이 참가해 댄스파티 등을 즐겼다.

장이 돼 U-Penn 문리대 수학과 과장을 맡고 있던 임덕상(문리대 46) 박사는 1977년 어느날 친지 다섯 분을 필라 시내 한국식당에 초대해 불고기와 맥주를 대접하며 망향의 한을 풀고 있었다. 우연인지, 미리 계획한 모임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섯 분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서울대학인데, 우리 동창회를 만듭시다."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고 그 시간부터 대화는 동창회 설립 문제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정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정말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시 회장에 임덕상 동문이 추대되었고 제갈은 동문이 총무직을 맡았다. 그 후 이 집저집 돌아가며 수도 없이 만났고, 새로운 동문들을 찾아내 주소록을 만들어 나갔다. 임덕상 회장과 제갈은 총무는 여러 면



에서 뜻이 맞았다. 둘이 다 서울대를 남다르게 사랑했으며 서울대인(人)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두 분이 회장직을 4대씩 수행했다 (제갈은: 16, 17, 18, 19대). 일년이 후막 지나갔다. 필라의 유일한 교포 일간지 독립신문에 '서울대 동창회 창립 총회 및 연말 파티 개최' 광고가 게재되었다. 부부동반 참가회비는 일인당 5달러. 참가자들에게 주소록을 준다는 미끼도 달았다. 창립총회는 대성공이었다. 36명의 동창이 참석했고 부부를 합하면 거의 60명에 달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관이 통과되고 회장, 총무 이사들이 선출되었다. 또 동창회 내에 테니스, 골프와 연말 파티 준비 위원회도 결성되었다. 공식 행사와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댄스파티가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

었으며 유행가가 나오면 부부들이 빙빙 춤을 추었다. 가곡이나 클래식 성악을 부르면 큰 박수도 받았다. ▶성장기 일단 출범한 동창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성장해 나갔다. 물밑듯이 밀려오는 이민자 속에는 서울대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큰 기여를 한 듯하다. 1985년 임덕상 회장의 동생, 임광상(공대 53) 동문이 제9대 동창회장이 되었다. 그 해 가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관악산에 위치한 서울대를 방문하여 당시 이현재 총장을 만나 인사를 하며 필라 지부를 소개했다. 이미 임덕상 박사를 잘 알고 있는 학교 당국은 동생을 따뜻히 맞아주었다. 대화 중에 총동창회의 임원들이 세계에 퍼져있는 동창회들을 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때 필라 지부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15면으로 계속)

# 아트와 음악이 있는 따뜻한 미시간의 겨울 밤

## 미시간 지부

누구나 아는 음악의 성인 베토벤과 한국인에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로 잘 알려진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사후에도 남겨진 음악과 건축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천재들?

지난 12월 3일 미시간 동문들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이 두 사람의 음악과 건축을 하루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본 대학에 재직중인 신미나 동문(사범 91)의 기획 하에 열린 이 행사는 미시간 동문회 겨울나기 첫 프로젝트로, 오후에는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브로드 아트 뮤지엄(Broad Art Museum)을 구경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서울대 음대 출신이자 미시간 주립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중인 조영현 동문(음대 95)의 베토벤 소나타 연주회를 참석하는 행사였다. 20여명의 동문이 함께 한 아트와 음악이 있는 하루는 먼거리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온 동문들 덕분에 칙칙한 비 내리는 겨울 오후를 따뜻한 동문의 밤으로 탈바꿈했다.

미시간 이스트 랜싱(East Lansing)에 위치한 미시간 주립대에는 2012년 개관한 브로드 아트 뮤지엄이 있다. 건축 공모를 통해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이 채택되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려한 곡선이 특징인 하디드의 대표작들과는 달리 직선을 위주로 디자인되었다. 학교의 오래된 주변 벽돌 건물들 사이에 우주선처럼 단연 눈에 띄는 이 건축물은 하디드의 특징인 철강과 콘크리트를 특징적으로 쓰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휴식과 영감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현대 미술을 소개하며 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모든 관람은 무료. 미시간에 오실 기회가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베토벤 소나타 연주를 마친 조영현 동문과 자리를 함께 했다.



미시간 주립대 브로드 아트 뮤지엄에서 작품설명을 듣고 있는 동문들. 맨 오른쪽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한 조영현 동문.



## 조영현 동문,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콘서트 참석하고 브로드 뮤지엄도 구경

있다면 한번 방문하시라고 추천한다.

저녁식사 후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조영현 동문의 공연장으로 향했다. 미시간 주립대 음대 건물 안 Cook Hall에서 열린 연주회는 베토벤의 서른두개 소나타를 전부 연주하려는 조 동문의 야심 찬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30,

31, 32번 소나타는 2021년 소니 클래식에서 발간된 CD에 담겨있고, 올 4월 1, 2, 3 번을 연주했고 이 날은 4, 5, 6, 7 번을 연주하는 날이었다. 내년 3월에는 8, 9, 10, 11번을 연주할 예정이며 앞으로 2-3년 안에 나머지 12번에서 29번까지 꾸준히 연주할 예정이다. 대략 2시간

에 걸친 조영현 동문의 열정적인 연주는 뜨거운 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물론 우리 동문들의 축하와 응원의 박수소리가 가장 우렁찼다.

미시간 지부는 앞으로도 좋은 기획을 통해 동문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1월에는 새해맞이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 2, 3월에는 온라인 세미나도 기획중이다. 미시간 지부의 겨울나기 프로젝트에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도 계속 따뜻할 듯 싶다. 글·사진=신미나(사범대 91)

본부 임원들이 필라를 방문했을 때, 필라 임원들은 공항에 나가 환영했으며, 온 회원들이 힘을 모아 용숭히 대접했음은 물론이다.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총장배 골프 트로피를 선물로 주고 갔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해외 동창회 중 필라 지부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서울대 본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가 왔다. 대학교 도서관의 장서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필라 동창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8대 회장 한병길(상대 54) 동문은 동창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창회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우선 손으로 필기해서, 앞뒷면 한 장에 카피한 '서울대학교 동창회보'가 탄생했다.

회보 내용 중에는 '모교 도서관 장서 수집 운동'을 위한 성금요청 기

사도 들어 있었다. 동창들의 십시일 반으로 약간의 돈이 모였다. 어떤 책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World Book Encyclopaedia'가 필요하다는 답전을 받았다. 즉시 구입해 당시 유기병 총무의 한국 방문시 직접 가지고 갔다.

동창회보 제 2호부터는 제호를 '필라춘추'로 바꾸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만들어 발송했다. 엄종열(미대 60) 동문이 디자인하고 만화도 곁들인 제법 그럴듯한 회보가 되어 이를 계간(季刊)으로 발행했다.

한병길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필라의 일반 교포사회에도 기여하고 싶어 했다. 동창 김경원 주 UN 대사(후에 주 미대사가 됨)에게 필라에 내려와 강연해 달라고 부탁해, 승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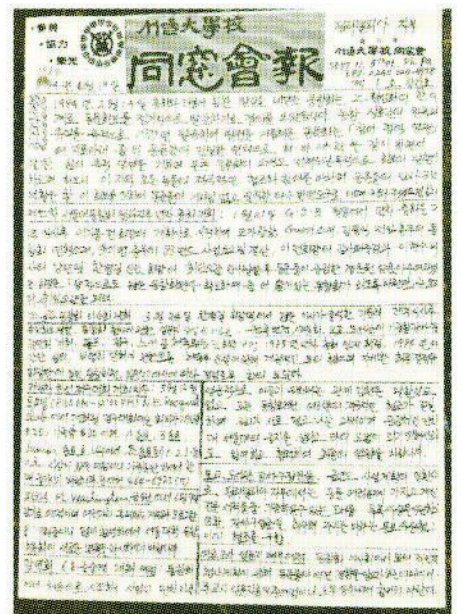
1984년 6월 15일 한인복지회관에 많은 동창들과 교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동창회보 발간과 UN대사 강연회는 당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연말 파티는 필라 시내 Adams Mark Hotel에서 열렸는데 약 200여 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필라뿐만 아니라 뉴저지, 델라웨어, 심지어는 수도 워싱턴DC의 동창들도 호기심 속에 얼굴을 보였다. 당시 필라 로컬 신문은 필라 교포 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시간이 흘러 1997년 매년 발간되는 동창주소록에는 25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20대 회장인 김용국(의대 58) 동문은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미주총동창회에 가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미주총동창회에 필라 동창회의 존재를 알리며, 그 산하에 소속하게 되었다.

정홍택 (상대 61)



1984년 손으로 필기해서 만든 필라델피아 첫 동창회보.



남가주 공대 동창회 총회 및 송년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배재현 회장 연임, 백사훈 차기 회장 선출

### 공대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12월 8일 LA 소재 작가의 집에서 2023년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회장단과 2025년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2024년 회장에는 배재현(전기 75) 현 회장이 연

임되었고, 2025년 회장에는 백사훈(전기 72) 동문이 선출되었다. 2024년 부회장과 총무는 백사훈 동문과 박운섭(금속 76) 동문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최고 선배인 유준석(건축 52) 동문과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

등 공대 동문은 물론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김경무 남가주 총동창회장, 임춘택 미주동창회 재무국장(차기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 70여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법대 동창회는 지난 12월12일 한식당 용수산 벙컷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회장단의 총회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 김성호 회장 연임, 사상 최대 70여명 참석

### 법대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서울대 법대 남가주동창회(회장 김성호·법대64)가 지난 12월 12일 LA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사상 최대 인원인 70여명의 동문이 참석, 와인과 치즈, 제갈 소망 동문이 이끄는 음악팀이 연주하는 음악을 시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격월로 열리는 법대 정기모임에 개근한 동문을 따로 시상해 박수 갈

채를 받기도 했다.

이번 모임에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 부부와 내년도 남가주 총동창회장 임춘택 동문 부부가 참석해 법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총회에서는 현 회장인 김성호 동문이 내년에도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김성호 회장은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하는 등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동창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2024년에는 야유회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 이원택 동문 '재미시인상' 영예

### 재미시인협회 선정

정신과 전문의인 이원택(의대 65·사진) 동문이 재미시인협회(회장 고광이)가 해마다 한 명 선정하는 제21회 재미시인상에 뽑혔다.

지난 1987년에 남가주 지역에서 창립한 재미시인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필력이 뛰어나고 시문학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시인을 한 명씩 선정해왔다.

이 동문은 2007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해 '만화경' '요지경' '무아경' '흔미경' '신비경' '분광경' 등의 문집과 글쓰기 지침서인 'Meta-writing'을 출간했



다. 2012년엔 '달-흙-홍시' 등으로 서울문학인 및 '아지트-낮은 책상-생일' 등으로 한국 문단에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2018년에는 미주 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 동문은 번역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2021년에 '미한 변형사전'을 출간했고 2022년 '미한 원형사전'에 이어 내년 1월 중으로 '영한 지구촌사전' '영한 신세대사전' '기초 스페인어사전'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동문은 "미국에 거주하며 한글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며 "더 정진하여 좋은 작품을 내리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수 년째 몸담고 있는 사전의 과학화와 문학화에도 힘을 더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지난달 LA소재 로텍스호텔에서 열린 재미시인협회 송년회에서 가졌다.

장병희 편집위원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의 2023년 연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54학번들 '있을 때 잘해' 합창에 동문들 박수로 화답



이날 많은 에피소드를 양산한 컵 쌓기 게임에 동문들이 진심을 보이고 있다.

## 조지아 지부 송년 모임 성황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회장 배혜영)는 2023년 송년 모임을 지난 11월 30일 저녁, 80여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 소재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클럽에서 이종호 동문(문리·81)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 송년회에서 참석자들은 컵쌓기 등의 여러가지 게임과 노래 자랑, 베스트 드레서 경연 등으로 4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균 나이 88세인 54학번 동문들이 무대로 나와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최고의 골프 레슨 강사로 유명한 83학번 동문 전옥휴 티칭 프로가 참석해 '시니어 장타 비결'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전옥휴 프로는 LPGA 최연소 데뷔 여자 골퍼 전영인 선수의 아버지이자 JTBC, SBS 등 한국 각종 방송 골프 해설자로 명성을 떨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골프 강사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온 배혜영 회장(음대 79)은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다. 차기 회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지부]



평균 나이 88세인 54학번 동문들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이날 뷔페로 마련된 저녁식사에서 동문들이 음식을 고르고 있다.



골프 전문 강사인 전옥휴 동문이 골프 스윙을 선보이고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십시오.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북가주 지부 송년모임



북가주 동창회는 지난 12월3일 플라즈톤에 있는 캐슬우드(Castlewood) 컨트리 클럽에서 동문과 가족 등 57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례 총회 겸 송년 모임을 열었다. 1부 사업보고, 재무보고, 감사패 증정에 이어 새로 취임한 김범섭(공대 79) 신임 회장단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부에서 식사를 마친 후 김옥자(음대 66) 동문이 이끄는 동문 고전무용단의 공연에 이어 노래자랑, 댄스파티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욕지부



지난 12월2일 열린 뉴욕 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김영덕 동문, 만장일치 추대

송년의 밤, 동문과 가족 120여명 참가

뉴욕 동창회는 지난 12월 2일 12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뉴저지에 있는 더블 트리 호텔에서 2023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연영재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뉴욕 동창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금영천 회장과 성기로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에 이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수여식도 있

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은 동문 전원이 참여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연영재 동창회장이 순서대로 “동창회를 사랑하시는 동문님, 동창회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는 동문님, 병상에 계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동문님” 하며 선정기준을 발표하자 동문들은 이미 김영덕 동문님을 지목하기 시작했고 연 회장이 계속해서 “동포사회에 헌신적으로 봉

사하시는 동문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동문님, 오늘 행사에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동문님”이라며 선정기준을 이어가자 행사장에 있던 모든 동문들이 김영덕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영덕 동문은 현재 뉴욕 동창회의 수석고문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다. 시상에 이어 장학생 3명 선정 및 장학금

지급 행사가 있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 3명 중에서 황소희(음대 08학번) 동문에게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을 대리하여 신용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어 서울대 음대 출신 젊은 동문들의 축하음악회가 열렸고 단체사진 촬영 후 즐거운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 밤 9시까지 이어진 여흥 시간에는 고전 무용, 라인댄스, 장기자랑, 래플 추첨에 이어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즐거운 Dance 타임을 가졌다.



신용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이 이상강 17대 미주동창회장을 대신해 미주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송년의 밤’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뉴욕 동문들. 이날 모임은 오후 4시에 시작해 밤 9시까지 진행되며 친목을 다졌다.



연영재뉴욕동창회장이김영덕수석고문에게 ‘자랑스러운서울대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 건강하고 의미있는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지난 12월2일 열린 필라델피아 동창회 송년 모임에서 오남환(농생대 68) 동문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주제로 강의를 해 동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캔ساس 주립대학에서 곡물화학으로 석박사를 하고 Best Foods (현 Unilever) 식품 연구소와 한국의 CJ 식품연구소 기술 고문을 지낸 오 동문은 자신의 건강법으로 혈압, 당뇨가 없는 것은 물론 지난 4년 코로나 기간 중 코로나는 물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는 체험을 전했다.



오남환  
(농생대 68)

어느덧 인생 행로가 7학년 중반으로 접어들다보니 이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체득한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행복한 삶의 가장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기 저기 통증이 느껴지고,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이 한 주먹이 되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신 승리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의미 있는 삶이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그 삶이 의미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한 삶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행복한 삶의 두 조건, 즉 육신의 건강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뉴스타트 건강 원칙을 강력히 추천한다. 뉴스타트(NEUWSTART)는 영어로 Nutrition(영양), Exercise(운동), Water(물), Sunlight(햇빛), Temperance(절제), Air(공기), Rest(휴식) and Trust In God(신앙) 등 8가지 건강 필수 요소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만 들고 보니 그 말의 뜻도 새로운 출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8 가지 요소가 다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3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가 신앙, 둘째가 운동, 셋째가 영양이다.

### 정신건강엔 신앙 필수

인간의 정신은 온 몸을 지배한다. 그런 인간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적 확신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

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 매일 아침 주중 5일 운동

필자는 주중 5일, 매일 아침 2시간 운동을 한다. 실내에서 1시간 각종 스트레칭과 근육운동을 하고 밖에서 동네를 1시간 조금 넘게 걷는다. 추운 겨울 날에도 등에 땀이 배이게 속보로 걷는다. 매일 하는 운동은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한다.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한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늘 성경 말씀 암송과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하며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필자는 노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양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몸은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긴장을 주어야만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은 편하면 편할수록 그 기능이 쇠퇴한다.

또 한가지 필자는 잘 때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 자면서 거의 누구나



입을 벌리게 되는데 그러면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된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마르고 심하면 목도 마르게 되어 충치 뿐 아니라 감기 등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술 가운데에 조그만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입안이 텅텅하지 않고 상쾌하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잘 때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고 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중력의 영향으로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래 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때 테이프를 조금이라도 붙이고 자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 채식과 간헐적 단식

필자는 주로 채식을 한다. 현미 식사를 하고 가능한 생 채식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하루 2식을 한다. 점심을 12

시쯤 먹고 저녁은 6시쯤 끝낸다. 그리고 식간에는 물이나 레몬즙이나 녹즙 외에는 어떤 간식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거의 18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24시간 중 반 이상의 시간 동안 나의 소화 기관은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 물 3~4잔, 아침 운동 나가기 전 레몬 1잔과 식간에 녹즙 2잔을 먹으면서 비타민 C 2,000 mg을 하루 4번, 6 시간 간격으로 먹으려고 애를 쓴다.

### 과일은 식사 전후 피해야

먹거리는 재료가 중요하지만 조리법 역시 아주 중요하다. 과일은 주로 생으로 먹지만, 한국 사람 식습관에는 채소를 거의 다 익혀 먹는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사람이 채소를 먹는 이유는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효소, 광물질, 각종 항산화제와 해독제를 섭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채소를 익히게 되면 모든 비타민과 효소는 불활성화 되고, 광물질은 유기 상태에서 무기 상태로 변하고, 각종 항산화제와 해독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익힌 채소에서 비롯된 무기 광물질은 모세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 되고, 이 모세 혈관의 막힘이 노화를 비롯한 모든 혈관 병들의 주 원인이다. 그래서 채소를 익혀 먹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러므로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나 즙으로 먹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특히 과일을 식사 바로 전 후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과일은 대체로 소화가 빨리 되어서, 소화가 오래 걸리는 채소와 다른 음식과 위에서 섞이면 발효가 되어서 술을 먹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일은 식사 전에 따로 먹는 것이 좋다.

### 최고의 과일, 레몬

레몬은 모세혈관이 막힌 것을 뚫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레몬 속에 있는 유기산이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레몬 즙은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역할도 한다. 위나 장 내시경은 위벽이나 장벽의 상태만 검사하지만, 레몬은 위나 장 속에 있는 염증도 잡아내고 동시에 치료도 한다. 그래서 매일 레몬즙을 공복에 마시면 위와 장의 건강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신 레몬즙을 바로 마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일, 레몬 즙이 속을 거북하게 하면 물로 희석하거나 오렌지 주스를 타서 먹든지 또는 양을 조절해서 위나 장이 레몬즙에 잘 적응하도록 기간을 주고 차츰 레몬즙의 양이나 농도를 올릴 것을 권장한다. 특별히 운동하기 전에 레몬 즙을 마시면 혈

관 청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비타민 C에 관하여

요즈음 동문인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 C 메가도스로 암을 치료하거나 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이 교수에 의하면, 비타민 C는 고용량을 사용해도 아무 부작용이 없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아주 큰 효과를 본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교수의 동영상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N1mrblQOk&ab\\_channel](https://www.youtube.com/watch?v=dVN1mrblQOk&ab_channel)

### 우유는 득 보다 실 많아

우유는 갓난 송아지를 1년에 중소로 키울 수 있는 많은 영양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다 영양이 필요 없는 성인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 과다 영양을 우리 몸 속에 항상 생기는 암세포가 취해서 암의 성장만 돕는다. 더구나 IGF-1이라는 성장 촉진 호르몬이 있어 더욱 더 암세포를 키운다. 실상 성인이 되어서 젖을 먹는 동물은 인간 밖에 없다.

이제까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부족한 필자의 체험과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동문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필자는 아직까지 이 나이에 그 흔한 혈압, 당뇨도 전혀 없고, 약간의 소변의 불편함을 제외하곤 기타 노인성 질환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별히 복용하는 어떤 약도 없다. 단지 식사 때 함께 먹는 비타민 C뿐이다. 그리고 지난 4년의 코로나 기간 중에도 코로나는 물론, 감기 증상 같은 것도 한번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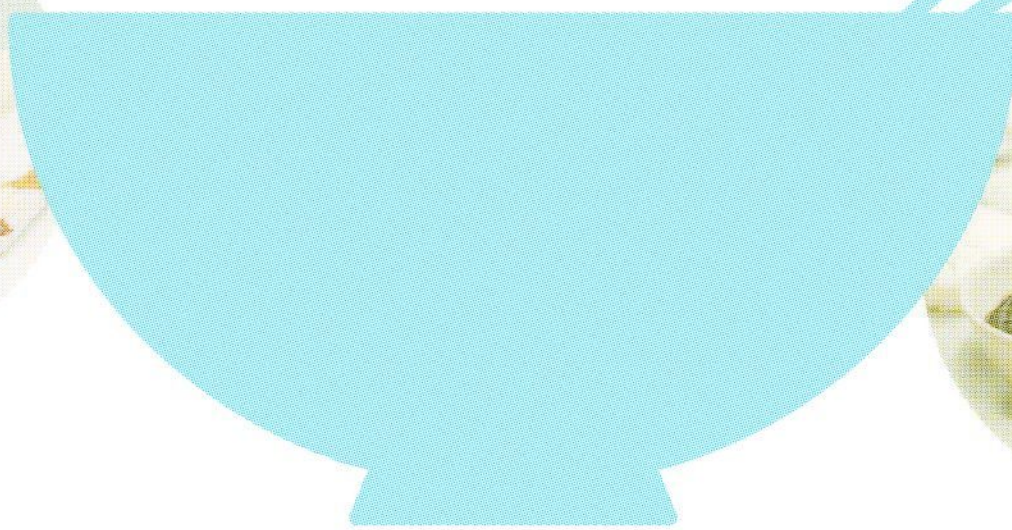
혹시 위에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namoh2000@yahoo.com)로 연락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동문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 식사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_\_\_\_\_ 연락처(이메일):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문성길 (의대 63)

# Disown '인연포기'

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 쪽에서 쓰는 단어가 소위, 'Disown' 소유, 인연포기한다라는 말이다. 자식쪽에선 '버림, 내버려짐'을 받은 느낌일 것이다. Homeless 일부가 한 예가 아닐까 한다. 아마도 자식을 유기하거나 고아원 등에 맡겨지는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심정, '버려졌다'는 느낌이 일생을 괴롭힌다고 한다. 그들에게 'disown'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일 것이다. 좀 오래된 위

이뿐일까? 옛날의 '고려장'도, 현대의 Nursing Home 제도도 말이 좋아서 이지 이유 여하를 떠나 자식이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Disown'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개인적으로 몇년 전 작고하신 큰 형님도 평소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하시던 Nursing Home에 가신 후 1주일만에 타계했고, 최근 친구 중 한 명은 얼마간 Nursing Home에 있다

은 곳에서 혹시 재수가 있어 선발되어 어느 주인에게 입양되기도 한 다지만 때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되돌려 보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이때 되돌아온 동물들, 축 처진 의기소침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한다. 하니 인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

이렇게 소유를 하지 않으려는 상태도 극명하게 다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보다 나은 처지의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불행한 약자들을 아끼 예수 외양간을 통해 이세상에 오신 때에 도와주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 아끼어 수 탄생을 맞이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새삼 느낀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나 우리 부부로서 듣기만 했지 어제 처음 본 'A Beautiful Mind' (Princeton대학 출신 천재 수학자의 고난의 역정을 곁에서 끝까지 보살피준 부인의 헌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1994년 공동 수상한 이야기)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음은 왜 그럴까? 끝까지 Disown을 거부한 현명한 부인 때문이 아닐까?



싱턴DC의 한국인 처녀 두 자매 노숙자 이야기도 있었다만은 한국전쟁 중에 부모와 생이별 후 어찌어찌 연유로 미국엔 왔지만 부모와의 생이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늘 허공에 대고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 우리를 찾으러 곧 오실 것"이라는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기사였음을 기억한다. 생 각 이상의 너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가 집에 돌아가 자신의 침대에서 운명하고 싶다해서 그리했다는 얘기를 미망인을 통해 들었다.

이야기가 번거로워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원리는 인연의 포기 Disown를 남녀노소없이 두려워하는 약한 인간의 심층심리가 아니고 무엇일까?

애완 동물, 반려동물들이 있어 한껏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행운아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된 동물보호소 같

'무소유'.  
법정스님 등 특히 정신세계의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언어도 세속에선 때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안다.

우리들이 것처럼 갖기를 갈망하는 것들을 초개같이 여기며 단지 연명하기에 절대 필요한 생활용품 몇 개를 제외하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무소유라고 한다면, 소유라기 보다는 인연을 계속하기 싫은 소위 골칫거리 무언가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연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가 영어권의 단어로 'Disown'이라는 동양인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신질환을 가진 식구가 있을 때 갖은 노력의 효과가 없는 절망적 상태에서 본인도 부모도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가 인연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홈리스와 하우스리스

1865년, 남북전쟁이 터진 그해의 12월은 몹시 추웠다. 버지니아주의 프레더릭스버그. 이곳 전투에서 북군은 무려 1만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남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지만 그래도 5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어느 날인가, 전선에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군악대의 연주가 밤하늘에 곱게 흩어졌다. 병사들은 애조 띤 멜로디에 가슴이 시렸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 곳은 작은 내 집 뿐이리." 감정이 북받쳤는지 곳곳에서 흐느낌도 들렸다.

노래는 강 건너 남군 진지에까지 퍼졌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쉼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하며 북군 병사들에 화답했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 뿐이리." 그날 만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돼 추위를 뜨겁게 달궜다. 다음날 북과 남의 병사들은 하루 휴전에 합의한다. 노래가 포성을 멈추게 한

기적을 빚어낸 것이다.

글로벌 애창곡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은 남북전쟁 때 히트한 노래다. 링컨 대통령도 죽음에 내몰린 젊은이들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전해진다. '모두 살아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울적한 심정이 대통령 의 가슴을 저미게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노래는 북군 남군 할 것없이 금지곡이 됐다. 병사들을 향수병에 걸리게 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밤만 되면 '한마음 음악회'가 열리니 지휘관들이 보기엔 적의 대포보다 '홈 스위트 홈'이 더 무서웠을 터.

노랫말은 미국의 극작가 겸 배우로 명성을 쌓았던 존 하워드 페인(1791~1852)이 썼다. 가사에 곡을 붙인 건 헨리 비숍. 그 때가 1823년이니 남북전쟁이 터지기 40년 전이다.

페인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전

해진다. 프랑스 파리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힘겨워하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 가사를 썼다는 것. 페인은 그러나 '홈 스위트 홈'은 커녕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끝내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홈리스로 삶을 마감했다.

정작 그가 고향에 묻힌 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다. 유해를 실은 군함이 뉴욕항에 도착하자 예포가 터지면서 성대한 환영행사가 펼쳐졌다. 링컨 못지않게 그의 노래를 사랑했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영광과 굴곡진 삶을 살았던 페인을 추모했다.

그의 마지막 '홈 스위트 홈'은 워싱턴 DC 인근의 오크힐 공동묘지. 연방정부 예산으로 추모비도 세워져 있다. 사적지로 지정된 이곳은 원래 남북전쟁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처여서 페인에게 걸맞은 예우를 해준 셈이다.

나라가 있다는 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페인은 그래도 편히 쉴 곳은 세상에

딱 한 군데, 바로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이라고 노래했다. 집은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어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공간, 불화와 다툼을 화해로 끌어내는 소통의 장이다. 그래서 집이야 말로 국가나 민족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이 노래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홈리스(homeless) 돕기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어찌 보면 노숙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하우스리스(houseless)'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홈리스'는 집은 있되 가족사랑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Home의 사전적 의미는 대체로 가정의 의미가 강한 반면 house는 살 곳, 즉 집을 뜻한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는 요즘. 100만달러 짜리 '하우스'에 살고는 있지만 혹 사랑이 없는 '홈리스'는 아닌지. 한번쯤 '홈 스위트 홈'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중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용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코네티컷 - 오인석 (법대 58)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욱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권봉성 (문리대 64)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광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공순옥 (간호대 66)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안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이은상 (상대 52)

### 미네소타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민홍기 (문리대 61)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 하틀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故최경운 (사대 51)

###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b>남가주</b> 수수 (58), 수수 (59), 수수 (60), 수수 (61), 수수 (62), 수수 (63), 수수 (64), 수수 (65), 수수 (66), 수수 (67), 수수 (68), 수수 (69), 수수 (70), 수수 (71), 수수 (72), 수수 (73), 수수 (74), 수수 (75), 수수 (76), 수수 (77), 수수 (78), 수수 (79), 수수 (80), 수수 (81), 수수 (82), 수수 (83), 수수 (84), 수수 (85), 수수 (86), 수수 (87), 수수 (88), 수수 (89), 수수 (90), 수수 (91), 수수 (92), 수수 (93), 수수 (94), 수수 (95), 수수 (96), 수수 (97), 수수 (98), 수수 (99), 수수 (100)	<b>서진 (62)</b> , 서진 (63), 서진 (64), 서진 (65), 서진 (66), 서진 (67), 서진 (68), 서진 (69), 서진 (70), 서진 (71), 서진 (72), 서진 (73), 서진 (74), 서진 (75), 서진 (76), 서진 (77), 서진 (78), 서진 (79), 서진 (80), 서진 (81), 서진 (82), 서진 (83), 서진 (84), 서진 (85), 서진 (86), 서진 (87), 서진 (88), 서진 (89), 서진 (90), 서진 (91), 서진 (92), 서진 (93), 서진 (94), 서진 (95), 서진 (96), 서진 (97), 서진 (98), 서진 (99), 서진 (100)	<b>정재현 (약 61)</b> , 정재현 (약 62), 정재현 (약 63), 정재현 (약 64), 정재현 (약 65), 정재현 (약 66), 정재현 (약 67), 정재현 (약 68), 정재현 (약 69), 정재현 (약 70), 정재현 (약 71), 정재현 (약 72), 정재현 (약 73), 정재현 (약 74), 정재현 (약 75), 정재현 (약 76), 정재현 (약 77), 정재현 (약 78), 정재현 (약 79), 정재현 (약 80), 정재현 (약 81), 정재현 (약 82), 정재현 (약 83), 정재현 (약 84), 정재현 (약 85), 정재현 (약 86), 정재현 (약 87), 정재현 (약 88), 정재현 (약 89), 정재현 (약 90), 정재현 (약 91), 정재현 (약 92), 정재현 (약 93), 정재현 (약 94), 정재현 (약 95), 정재현 (약 96), 정재현 (약 97), 정재현 (약 98), 정재현 (약 99), 정재현 (약 100)	<b>오영환 (약 68)</b> , 오영환 (약 69), 오영환 (약 70), 오영환 (약 71), 오영환 (약 72), 오영환 (약 73), 오영환 (약 74), 오영환 (약 75), 오영환 (약 76), 오영환 (약 77), 오영환 (약 78), 오영환 (약 79), 오영환 (약 80), 오영환 (약 81), 오영환 (약 82), 오영환 (약 83), 오영환 (약 84), 오영환 (약 85), 오영환 (약 86), 오영환 (약 87), 오영환 (약 88), 오영환 (약 89), 오영환 (약 90), 오영환 (약 91), 오영환 (약 92), 오영환 (약 93), 오영환 (약 94), 오영환 (약 95), 오영환 (약 96), 오영환 (약 97), 오영환 (약 98), 오영환 (약 99), 오영환 (약 100)	<b>이창재 (문 56)</b> , 이창재 (문 57), 이창재 (문 58), 이창재 (문 59), 이창재 (문 60), 이창재 (문 61), 이창재 (문 62), 이창재 (문 63), 이창재 (문 64), 이창재 (문 65), 이창재 (문 66), 이창재 (문 67), 이창재 (문 68), 이창재 (문 69), 이창재 (문 70), 이창재 (문 71), 이창재 (문 72), 이창재 (문 73), 이창재 (문 74), 이창재 (문 75), 이창재 (문 76), 이창재 (문 77), 이창재 (문 78), 이창재 (문 79), 이창재 (문 80), 이창재 (문 81), 이창재 (문 82), 이창재 (문 83), 이창재 (문 84), 이창재 (문 85), 이창재 (문 86), 이창재 (문 87), 이창재 (문 88), 이창재 (문 89), 이창재 (문 90), 이창재 (문 91), 이창재 (문 92), 이창재 (문 93), 이창재 (문 94), 이창재 (문 95), 이창재 (문 96), 이창재 (문 97), 이창재 (문 98), 이창재 (문 99), 이창재 (문 100)	<b>서상현 (의 65)</b> , 서상현 (의 66), 서상현 (의 67), 서상현 (의 68), 서상현 (의 69), 서상현 (의 70), 서상현 (의 71), 서상현 (의 72), 서상현 (의 73), 서상현 (의 74), 서상현 (의 75), 서상현 (의 76), 서상현 (의 77), 서상현 (의 78), 서상현 (의 79), 서상현 (의 80), 서상현 (의 81), 서상현 (의 82), 서상현 (의 83), 서상현 (의 84), 서상현 (의 85), 서상현 (의 86), 서상현 (의 87), 서상현 (의 88), 서상현 (의 89), 서상현 (의 90), 서상현 (의 91), 서상현 (의 92), 서상현 (의 93), 서상현 (의 94), 서상현 (의 95), 서상현 (의 96), 서상현 (의 97), 서상현 (의 98), 서상현 (의 99), 서상현 (의 100)	<b>이재승 (의 55)</b> , 이재승 (의 56), 이재승 (의 57), 이재승 (의 58), 이재승 (의 59), 이재승 (의 60), 이재승 (의 61), 이재승 (의 62), 이재승 (의 63), 이재승 (의 64), 이재승 (의 65), 이재승 (의 66), 이재승 (의 67), 이재승 (의 68), 이재승 (의 69), 이재승 (의 70), 이재승 (의 71), 이재승 (의 72), 이재승 (의 73), 이재승 (의 74), 이재승 (의 75), 이재승 (의 76), 이재승 (의 77), 이재승 (의 78), 이재승 (의 79), 이재승 (의 80), 이재승 (의 81), 이재승 (의 82), 이재승 (의 83), 이재승 (의 84), 이재승 (의 85), 이재승 (의 86), 이재승 (의 87), 이재승 (의 88), 이재승 (의 89), 이재승 (의 90), 이재승 (의 91), 이재승 (의 92), 이재승 (의 93), 이재승 (의 94), 이재승 (의 95), 이재승 (의 96), 이재승 (의 97), 이재승 (의 98), 이재승 (의 99), 이재승 (의 100)	<b>이만택 (의 52)</b> , 이만택 (의 53), 이만택 (의 54), 이만택 (의 55), 이만택 (의 56), 이만택 (의 57), 이만택 (의 58), 이만택 (의 59), 이만택 (의 60), 이만택 (의 61), 이만택 (의 62), 이만택 (의 63), 이만택 (의 64), 이만택 (의 65), 이만택 (의 66), 이만택 (의 67), 이만택 (의 68), 이만택 (의 69), 이만택 (의 70), 이만택 (의 71), 이만택 (의 72), 이만택 (의 73), 이만택 (의 74), 이만택 (의 75), 이만택 (의 76), 이만택 (의 77), 이만택 (의 78), 이만택 (의 79), 이만택 (의 80), 이만택 (의 81), 이만택 (의 82), 이만택 (의 83), 이만택 (의 84), 이만택 (의 85), 이만택 (의 86), 이만택 (의 87), 이만택 (의 88), 이만택 (의 89), 이만택 (의 90), 이만택 (의 91), 이만택 (의 92), 이만택 (의 93), 이만택 (의 94), 이만택 (의 95), 이만택 (의 96), 이만택 (의 97), 이만택 (의 98), 이만택 (의 99), 이만택 (의 100)
--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b>일반후원금</b> 남가주: 김동석 (500), 송영두 (200), 박한영 (100), 백옥자 (200), 이범식 (200), 이상대 (500), 임낙균 (10,000), 전상욱 (1,000), 한귀희 (50), 한정현 (500), 황현상 (100) 뉴욕: 광선섭 (200), 신응남 (500), 김해암 (100), 리준무 (200), 문석민 (200), 우영환 (1,000), 윤철 (200), 이준행 (1,000), 조남천 (200), 에드워드강 (300), 허선행 (200)	<b>북가주</b> : 이성원 (200) <b>네바다</b> : 김삼순 (200) <b>미시간</b> : 이성길 (200) <b>커네티컷</b> : 최창승 (200) <b>샌디에고</b> : 임춘수 (300) <b>워싱턴DC</b> : 박평일 (500), 권철수 (200), 김명철 (200), 서운석 (200), 백순 (200), 정평희 (200) <b>플로리다</b> : 김중권 (200) <b>시카고</b> : 소진문 (200), 최희수 (100)	<b>뉴잉글랜드</b> : 윤상래 (1,000) <b>테네시</b> : 김경덕 (200) <b>텍사스</b> : 황명규 (200) <b>필라델피아</b> : 최창승 (500) <b>하트랜드</b> : 이상강 (41,000) <b>휴스턴</b> : 진기주 (1,000) <b>업소록 후원금</b> 남가주: 서동영 (240), 김원탁 (240), 강호석 (240), 이종모 (240) 뉴욕: 신응남 (240), 석창호 (240)	<b>장학기금</b> <b>워싱턴 DC</b> : 권철수 (200) <b>시카고</b> : 김현주 (3,000), 이용락 (3,000) <b>뉴욕</b> : 선종철 (100), 신응남 (200), 홍성선 (100) <b>광고후원금</b> 남가주: 김양희 (900), 미주재단 (6,000), 박수경 (6,000), 서치원 (1,500), 신동국 (300), 이병준 (1,500), 이경희 (300), 흥훈정 (300) 뉴욕: 김승호 (1,500)	<b>모교발전기금</b> <b>워싱턴 DC</b> : 권철수 (100) <b>오레곤</b> : 김명자 (100) <b>튀르키예 기부금</b> 남가주: 서진 (3,000) 뉴욕: 신응남 (200)	<b>Website 광고</b> 남가주: 김자성 (1,000) <b>Brain Network</b> 뉴욕: 신응남 (100) <b>Charity Fund</b> 필라델피아: 신의석 (5,000)
--	--	---	---	---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신혜원 변호사</b>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복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Seoul Medical Group</b>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치과</b>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b>KL CPA &amp; Associates LLC</b>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신응남 변호사</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박종호 소아과</b>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b>필라델피아   PA</b>
<b>건축</b>
<b>Timothy Haahs &amp; Asso.</b>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b>의료 / 치과</b>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b>오레곤   OR</b>
<b>엔지니어링</b>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b>기타</b>
<b>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b>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ip@snu.ac.kr
<b>조지아</b>
<b>건축</b>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b>의료</b>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4"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3.5" x 2")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5" x 4.5")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병호(공)

### 역대회장

박운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해욱(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래(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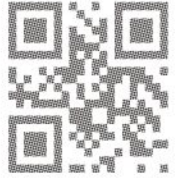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 이메일 snuausa17@gmail.com |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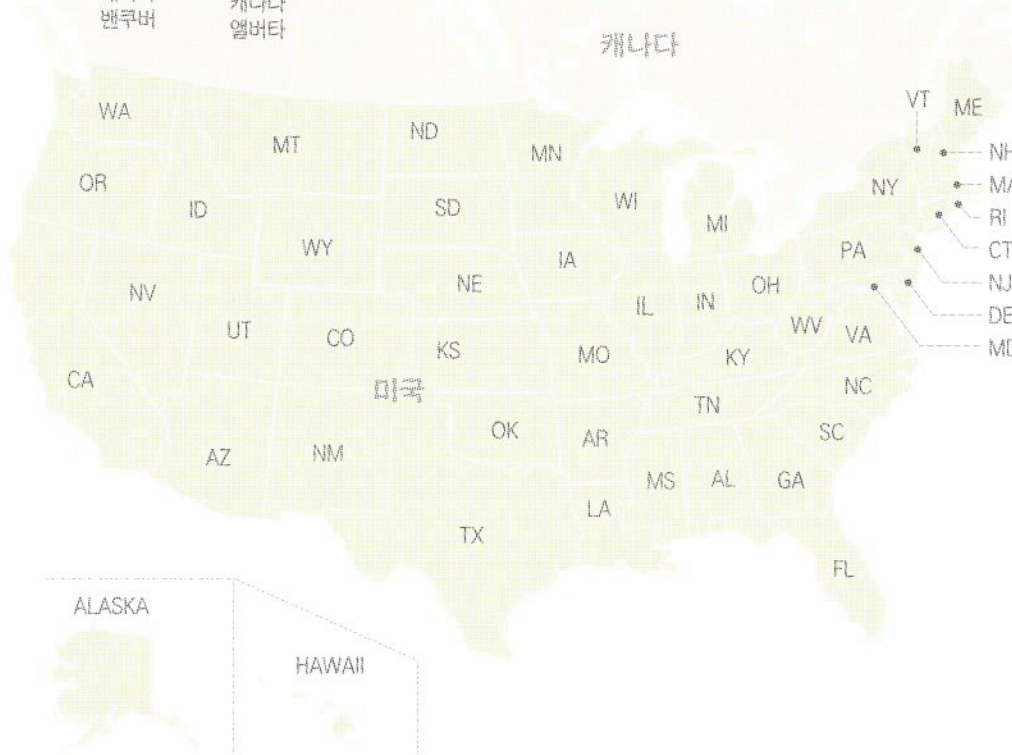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대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 (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앨버타



### 뉴욕 NY/NJ (July~Jun)

회장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msft@hotmail.com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 커네티컷 CT

회장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 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6)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 하일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DUO America**  
since 1999

#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www.yongsusanla.com](http://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창문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품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부공래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성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Red Wing, Minnesota,  
Developer: IPS S  
Engineering: EVS

#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

[www.evs-eng.com](http://www.evs-eng.com)